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
지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
한 변치 않는 믿음과 경외심을 갖고 처음
부터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전
수하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옵
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내가 네게 영하는 이 말
씀을 나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
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
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
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7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11월 12일 (토) 제 160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국인 20% “한 지붕, 두 종교” 가정서 성장

퓨리서치, 미국사회 종교적 다원화 보여주는 방대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

미국에서 주일이면 온 가족이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
습은 이전 추억으로만 남겨진다. 교회에 나가는 엄마와 성당에 가
는 아빠 아니면, 유태계 엄마와 교회에 나가는 새 아빠에 의해서
자라난 미국 성인들이 5명 중 1명으로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
라고, 퓨리서치는 55 쪽에 이르는 방대한 설문 결과(One-in-Five
U.S. Adults Were Raised in Interfaith Homes: A closer look at
religious mixing in American families)를 통해, 미국 사회에서 가
속화 되고 있는 종교적 다원화를 진단하고 있다.

이번 설문 결과는 2014년에 이미 보고된 “미국 종교현황 연구”
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산물로, ‘2014년 설문결과와 핵심사항과
2015년 미 성인 5,00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합한 성인
35,000명 이상에게 설문한 내용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지는 가정에서의 종교문제가 어떻게 자녀들의 영적 성
장과 종교 선택, 가정에서의 부모의 종교적 유산 전수 그리고 결혼
과 종교 문제 등등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 2회에 걸쳐서 그
핵심 내용만을 발췌 보도한다.

아직까지 미국사회에서 종교 다원화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문가들은 진
단한다.

미국인 중 80%가 같은 종교를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젊은 세대일수록,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 즉 밀
레니엄 세대 중 2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는 것이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그대로 이러한 현상을 방치
해두면, 한 집에서 서로 다른 종교적 장소
로 예배나 미사 아니면 집회를 드리러가는
가정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X
세대는 20%만이, 베이비부머는 19% 그리
고 그 전 세대는 13%만이 다른 종교를 믿
는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응답하고 있다.

미국 가정의 전통적인 모습 즉 한 가족이
교회에 나가는 가정에서 자라난 밀레니엄
들은 24%로, 베이비부머 세대 이전인 엘더
세대 48%의 절반에만 미치고 있다.

퓨리서치는 이처럼 종교 다원주의 또는
미국인들의 무교회, 교단주의 아니면 세속
화가 가속화되는 원인의 유형들을 다음과
같이 발견했다:

종교적 “넌스”(nones)

미국인들 중 아무런 종교공동체와 관련
을 갖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랐을 경우, 성
인이 되어서도 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난다. 결국 종교를 가지지
않은 편부모나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난 성
인 중 62%가 현재 종교적 “넌스”다.

그러나 많은 “넌스”들 역시 종교적 혼합
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났다. 38%는 부모 중



미국내 한 가정안에서도 종교 다원화 현상이 일어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
은 점점 더 힘들어 지고 있다.

한 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부모
는 종교와 연관이 없는 가정이다. 부모가
교회 그리고 성당으로 갈라져 나가는 가정
에서 자라난 “넌스”들도 26%나 된다. 그리

고 교회에 나가는 부모 환경에서는 14%, 성
당에 나가는 부모인 경우에는 10%이다.
(3면으로 계속)

제자훈련은 ‘건강한 소그룹 안에서’ 이뤄진다!

리더십저널, 제자훈련 사역전문가 빌 헐 목사의 ‘소그룹 만들기’ 소개

오늘날처럼 연약하고 불순종하는 교회가 등장한 이유는 제자훈련을 사회와 시
대에 맞게 정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자 삼는 일은 언제나 교회의 중
심이 돼야 한다. 빌 헐 목사는 교회가 제자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사역으로 돌아오
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제자훈련 사역 전문가, 빌 헐 목사(Bill Hull, www.billhull.net)는 예수께서 제자
들을 불러 영적 변화를 통해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진리를 저술과 세미나를
통해 전파하고 있다. 2006년 나비프레스(NavPress) 출판사는 제자훈련에 관한
헐 목사가 쓴 전권을 한 볼륨으로 출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에 제자훈련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재천명하였다.

헐 목사가 말하는 제자 교회란 뛰어난
리더 한 사람이나 목회자가 이끌어 가는
교회라 아니라 건강한 리더십 공동체와
목양의 책임을 함께 맡는 소그룹이 유기
적으로 협력해 운영되는 교회다. 즉 ‘리
더 한 사람’이 소수의 엘리트로 이루어
진 헌신된 십자가 군사들을 리드하는 것

그들이 직장, 가정, 친척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삶을 발견하고 성
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소그
룹에는 목표와 목적, 기본 원칙이 있다.
소그룹 리더는 지역의 연간 학교 일정과
같이 소그룹 일정을 계획한다: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는 3-14명 사

건강한 소그룹은 신중한 계획과 고민있어야...기본사항과 기도 필수

삶속에서 그리스도 경외하는 생활방식을 개발하고 돕는 것이 목표

에서 ‘리더십 팀’이 다차원적인 회중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도록 가르치는
교회를 말한다. 이런 교회는 폭넓은 적용
이 가능한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운영되
고, 모든 사람이 담당해야 할 자신의 역
할이 있으며, 성도의 삶으로 불신자들이
전도되는 배가 현상이 나타난다. 그는 제
자훈련의 전진 기지로 먼저 건강한 소그
룹을 만들 것을 권면한다.

건강한 소그룹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신중한 계획과 고민이 있어야 가
능하다. 성공적인 소그룹 계획에는 다음
기본 사항과 기도가 필요하다.
소그룹은 3-14명이 정기적으로 만나
는 모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

이에 돌봄과 지원이 있는 모임에서 형성
된다.

△매주 만나는 것을 권장하지만 격주
나 월별로 모이는 것도 가능하다.

△공동의 목적은 우리의 주님이자 주
인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서로 섬기
며, 공통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연합하고, 우리 주변 세상의 선교를 준비
하는 것이다.

△소그룹은 아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잘 모르지만 공평한 사람, 헌
신된 그리스도인이지만 지체의 경험과
도움을 바라는 사람에게 모두 열려 있
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626)522-9909
대표 박희성 목사 myong@joenchulpan.com



아는 게 힘이다
새라김 사모

5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인/터/뷰
공혜, 조은주 선교사

16면

추수감사 특별 새벽 복흥회

“최상의 감사는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한기홍 목사

- 일시: 2016.11.14(월) ~ 11.19(토)
(월 ~ 금 5:20am/토 6:00am)
- 장소: 은혜한인교회본당(비전센터)
- 강사: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담임목사 설교방송	
KSCI CH 18.1	오전 08:00(주 일)
TIMEWARNER CH 18	오전 08:00(주 일)
LA 지역 케이블 방송 CH 18	오전 08:00(주 일)
DIRECT TV CH 18	오전 08:00(주 일)
DISHNETWORK CH 8017	오전 08:00(주 일)
JSTV 미국지역 CH 668(DISHNET)	오전 10:00(주 일)
SAN DIEGO RADIO SEOUL AM 1450 오전 6:00(화요일)	
크리스천 해럴드 방송 AM 1650	오전 05:30(수요일)
KCBS CHICAGO AM 1500	오전 10:20(수요일)
CTS 미국(DIRECT TV) CH 2092	오후 08:00(수요일)
SACRAMENTO 복음방송 AM 1690	오전 10:00(목요일)
JSTV 미국지역 CH 668	오후 1:30, 5:30, 9:40
CH TV 18.88	오후 10:00(목요일)
미주 복음방송 AM 1190	오전 11:30(금요일)
CTS 미국(DIRECT TV) CH 2092	오전 05:30(금요일)
CTS 한국(라)	오전 05:00(한국시간)

주일에매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예매 | 5:30am, 8pm | 금요일성령집회 8pm
은혜기도원 TEL: 951)277-1188 / 1195 Indian Truck Trail, CA 92883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6200 www.gracemi.com

유럽, 교도소까지 급진화 됐다!

ISCR 보고서, 골수 지하디로 바뀐 유럽인 79명 행적 추적

최근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유럽의 지하디 단체들은 범죄 네트워크와 밀착돼 있다. 지난 10월 11일 영국 킹스칼리지의 '국제 급진화-정치폭력 연구센터(ISCR)'가 발표한 보고서 '과거의 범죄자, 미래의 테러범(Criminal Past, Terrorist Future)'은 잡범에서 골수 지하디로 진화한 유럽인 79명의 행적을 추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집단과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는 같은 교도소에서 조직원을 끌어들이며 폭력 사용과 법집행·단속을 따돌린 경험을 쌓은 재소자들의 기술과 환경을 전수 받도록 한다(ISIS IN EUROPE: 'COMPLETE CONNECT' BETWEEN JIHADI AND CRIMINAL CIRCLES ACROSS CONTINENT).

보고서의 공동 작성자인 피터 노이만 ISCR 소장은 "그 두 집단이 서로 완전히 연결됐다"고 말했다.

"IS의 메시지는 경건과 거의 같다. 대부분은 총과 모함에 초점이 맞춰진다. 10-15년 전엔 알카에다가 이슬람의 교리를 내세

가장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소인 교도소는 급진 사상에 몰들기 쉬운 분노한 젊은이를 포섭하기에 이상적인 극단주의 인큐베이터가 됐다"고 설명했다. "수감자 중에서 조직원을 모집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목격됐다. 그런 장소로 교도소가 이전보다 훨씬



지난 3월 벨기에 브뤼셀의 테러 현장 부근에서 경계를 서는 경찰. 범인은 교도소에서 지하디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사회 적응 못하는 젊은 범죄자 양성하는 "극단적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 유럽서 활동 지하디스트 절반이상이 범죄자...유럽 교도소서 테러범으로 급진화

워 무장 투쟁을 정당화하면서 대원들을 모집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동 보고서의 추적 대상이 된 지하디 79명은 영국인 16명, 독일인 15명, 벨기에와 프랑스인 각각 13명, 네덜란드와 덴마크인 각각 11명으로 급진 이슬람주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럽 국 출신으로 구성됐다. 그중 45명(57%)은 사상이 급진화되기 전에 경범죄부터 폭력범죄 등에 연루돼 한 달에서 최대 10년 이상까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적이 있었다. 교도소 생활이 지하디가 되기로 결심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밝혀진 극단주의 음모 중 40%는 마약 밀매, 절도, 강도, 지폐 위조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

ISCR은 그중 실제로 교도소에서 사상이 급진화한 지하디를 12명(27%)으로 추정했다. 교도소 내 급진화의 주 원인은 재소자가 지하디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취약한 재소자들은 새로운 급진 사상과 가치를 잘 받아들인다. 일부 재소자는 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종교 즉 급진 이슬람주의로 눈을 돌리고 스스로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이념에 심취한다. 폭력적인 본성의 대체 발산 수단인 셈이다.

노이만 소장은 "그 두 집단이

선 중요해졌다."

실제로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대형 테러 용의자 상당수가 교도소에서 급진화 됐다. 프랑스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신부를 살해한 19세 IS 추종 테러범 아델 케르미슈가 정신적 승수를 교도소에서 만났다고 밝히는가 하면, 지난해 1월 파리에서 유대인 식품점에서 테러를 저질렀던 아메디 콜리발리 역시 교도소에서 급진화 됐다고 밝혔다. 파리 테러범 중 유일한 생존자인 살라 압데슬람도 잡범으로 수감된 교도소에서 파리 테러 총책 압델하미드 아바우드를 만났다.

ISCR은 또 IS가 범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교도소 내에서 변진다고 분석했다. 노이만 소장은 "IS는 더 이상 단순히 종교적 단체가 아니라 잔인성과 폭력, 힘 등을 상징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며 "이는 대부분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갈구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교도소가 지하디 이념을 전파하는 이상적인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그들의 범죄 전력은 '외로운 늑대'가 국내 지하디가 되는 필수적인 기술과 도구를 제공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부분 범죄자는 단속과 체포를 피하고, 무기를 입수하고 사용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위조된 문서를 얻고,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물자를 조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과자들은 경찰과 쫓고 쫓기는 상황을 견뎌낼 능력이 더 커져 범죄 전력 없이 급진화 된 지하디보다 폭력을 더 쉽게 행사하는 경향을 띤다. 따라서 그들의 급진화에 필요한 기간은 몇 달이면 충분하다.

노이만 소장은 "보통은 누군가 급진화 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급연이나 급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조사에 따르면 요즘은 급진화 되더라도 흡연과 음주, 마약을 계속한다. 그래서 표시가 잘 나지 않아 경찰이나 정보기관이 급진화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

ISCR의 보고서는 공격이 감행되기 전에 지하디와 지하 범죄계는 신체를 확보했으며, 무기를 구입했다. 그런 연락처를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테러 공격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서 추적 대상이 된 지하디의 평균 연령은 25세였다.

대부분 신앙이 깊지 않은 잡범이었고 흡연이나 음주, 또는 마약을 했다. 그들은 급진화 과정을 거쳐 지하디가 되더라도 이런 습관을 잘 버리지 않기 때문에 대테러 담당자들에게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이만 소장은 "보통은 누군가 급진화 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급연이나 급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조사에 따르면 요즘은 급진화 되더라도 흡연과 음주, 마약을 계속한다. 그래서 표시가 잘 나지 않아 경찰이나 정보기관이 급진화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

ISCR의 보고서는 공격이 감행되기 전에 지하디와 지하 범죄계는 신체를 확보했으며, 무기를 구입했다. 그런 연락처를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테러 공격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4면으로 계속)



시론

나누며 범사에 감사!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제주 해녀의 삶'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감독 "고희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제주 해녀들의 급기어인 "물숨"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기까지 꼬박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제주 해녀들에게는 "숨비와 물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숨비"는 제주 해녀들이 물속에서 숨을 참다 참다 끊어지기 직전 수면 위로 올라와 길게 "호이~ 호이~" 휘파람을 내며 숨을 쉬는데 이를 "숨비"라고 합니다. 이 숨비는 생명입니다. 다른 하나인 "물숨"은 "마음의 숨소리"입니다. 자기가 숨을 쉬었다고 착각하고 숨을 삼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해녀들이 최대한 숨을 참다 이제 숨을 쉬려고 물 위로 올라와야 하는 그 순간, 너무 큰 전복이나 큰 홍삼이나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캐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고 그 욕망이 너무 커서 아직 바다 속인데도 물 위로 착각해서, "히"하고 숨을 들이마시는데 이를 "물숨"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해녀들은 숨을 못 쉬고 물을 먹게 되어 죽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이 "물숨" 때문에 많은 해녀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숨비"가 "생명"이라면 "물숨"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해녀들은 이 물숨과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딸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지 말고 숨비만큼만 따. 눈이 욕심이야. 욕심을 잘 다스려야 해." "숨비" 만큼만 따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 욕심 때문에 물숨을 쉬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만 더"라는 욕심이 이렇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 우리는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니..."(갈5:22) "조금만 더"라는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욕심을 절제하며 욕심에서 자유하여, 감사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갈5:18). 얼마전 새벽기도회 때 호세아서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호13:6).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먹는 종교인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교만하여져 하나님을 잊는 자가 될 정도의 부자가 아닌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겸손한 신앙인이 될 만큼만 배가 부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신앙의 주제는 "욕심의 절제, 욕심에서 자유"입니다. 욕심 때문에 사망의 길로 들어서면 안됩니다.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켜서도 안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잠28:25).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은 바로 나의 욕심과 상대방의 욕심이 부대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욕심이 많은 자는 항상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인생이 감사가 있고 풍요롭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욕심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대답은 나누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어둠과 죄악의 길로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율법이라면, 복음은 빛과 의의 길로 힘써 가는 겁니다. 빛으로 가면 자연히 어둠은 사라질 것이고, 의의 길로 가면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됩니다. 욕심을 절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율법이라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섬기고 베풀며 나누려고 애쓰는 게 복음입니다. 섬기고 나누려고 애쓰면 자연히 욕심에서 자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손에 꼭꼭 쥐며 더 많이 쥐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 손을 짚짝 펴며 더 많이 나누며 사는 겁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베풀고 나눌 때 비로소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눌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들과 자녀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허락하신 교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매일 매일의 일상에 버릴 것 하나 없이 범사에 빠짐없이 감사하게 됩니다.

나눌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는 천국과 구원과 영생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을 절제하고, 욕심에서 자유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올 가을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pastor.eun@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30th Anniversary 1986-2016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미국인 20% “한 지붕, 두 종교” 가정서 성장

(1면에서 계속)

카톨릭
부모 모두 카톨릭신자일 경우, 62%가 성인이 되어서도 성당에 나간다. 그러나 부모간의 종교가 다른 경우, 그 확률은 반절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제로, 개신교/가톨릭 부모일 때, 불과 29%만이 카톨릭이고, 카톨릭/무종교일 때는 32%다.

기독교
부모가 기독교인일 경우, 80%가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계승하게 된다. 그리고 기독교/무종교일 경우에도 56%가 기독교인이 되고, 이러한 경우 기독교 전통 즉 교단을 따르게 되는 경우(24%)가 많다. 즉 부모 중 한 명이 침례교인이라면, 자녀 역시 침례교회를 다니게 된다.

어머니 역할
신앙 전승에는 역시 어머니 역할 중요하다. 많은 미국인들은 친부모이건 입양이건, 부모 모두가 종교적으로 성장하는데 동등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미국인 중 거의 40%는 어머니로부터 더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가정에서도 어머니는 역시 맹위를 발휘한다. 46%가 어머니가 자신들의 영적, 종교적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율은 불과 7%에 그쳤다. 따라서 성인 중 48%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28%만 아버지 종교를 따라가게 된다.

배우자의 종교
한편 결혼에 있어서도 배우자의 종교가 서로 다른 즉 “한 지붕 두 종교” 형태가 늘고 있다. 대략 미국인 중 결혼한 가정의 25%가 신앙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9%

는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형태로 그리고 15%는 배우자 한쪽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다른 배우자는 종교와는 담을 쌓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결혼한 성인들은 동일한 신앙을 나누는 가정에 비해 덜 종교적이 된다. 결국 주일날 같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누고 그리고 신앙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고백하는 같은 신앙을 가진 부부는 77%에 이른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부부는 54% 그리고 배우자 중 한 쪽이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51%로 떨어진다.

동일한 신앙을 나누는 부부에게 있어서 ‘종교적 대화’는 바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나누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역시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부부에 비해서 많아, 건강한 결혼 생활을 촉진시켜주는 자양분처럼 진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의 종교 형태 즉 “한 지붕 한 신앙”이나 “한 지붕 두 신앙”에 따라 자녀와의 종교 활동에도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현재 동일한 신앙을 나누는 가정 중 75% 이상은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주일 학교에 보낸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는 이러한 종교 활동들에 보내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자녀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한 지붕 한 신앙” 대(vs) “한 지붕 두 신앙”은 차이를 보인다. 같은 신앙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성인 중 52%는 종교가 자신이 성장하는데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며, 43%는 어렸을 때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36%는 부모가 항상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응답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가정에서나 한쪽만이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들에게 신앙은 그다지 중요한 환경이 아니었다고 응답한다.

결국 “한 지붕 두 신앙” 가정에서의 자녀들을 위한 양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다행하게도, 한쪽은 신앙을 가지고 다른 쪽은 불신앙인 가정에서 성장시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16%는 신앙과는 상관없이 세속적 기준으로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역할과 선택이 중요했다.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싶다”라는 설문에서 어머니들은 남편에 비해 월등하게 “예”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15 대 1).

그러나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배우자의 종교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 즉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성생활을 하며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의 집을 나누는 등등의 원칙 중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44%의 결혼한 성인들이 배우자의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이러한 응답은 “배우자의 적당한 소득”과 같은 비율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할 요소가 아니었다. 결국 미국인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종교는 결혼을 실행하는데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된 것이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종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7%에 불과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 것이다.

결론으로, 퓨리서치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사회가 점점 더 다원화되고 있고, 바로 사회의 기초인 가정에서부터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부모나 한쪽만이 신앙을 가진 환경에서 자라난 성인들이, 이러한 현상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의 원리를 이러한 환경에서 지혜롭게 증거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살아있는 건강한 가정의 모범 사례들을 보여줘야만 한다.

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직장 동료, 친구,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또 다른 신자들을 소개한다.

△고용주, 직원, 고객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직업윤리를 실천한다.

△교회 가족이 한 팀이 되어 확대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도움과 영적 양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긴다.

△각자의 능력, 장점, 은사를 직장, 가족, 상처 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사용한다.

△향후 소그룹이나 사역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제지훈련은 ‘건강한 소그룹 안에서’ 이뤄진다!

(1면에서 계속)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며 새로운 성과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다.

결국 소그룹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며 노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생활 방식을 개발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가지 소그룹 목표를 정한다:

1. 우리의 보살핌과 도움을 확산한다.
2. 직장 동료, 친구, 이웃을 말과 행동으로 사랑한다.

3. 사람들을 잘 훈련된 제자로 삼기 위해 우리의 삶과 교회행사에 초청한다.

4. 은사를 확인하며 개발하고 사용하여 열매를 맺는다.

5. 장차 리더가 될 훈련생을 키운다.

6. 사람들이 성장하고 은사가 개발되면 창의적인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안에서 하늘 아버지를 경배하고 활기찬 기도생활을 유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로 하나

미주크리스천신문 새로운 이메일 주소 - NY: nychpress@gmail.com, LA: lachpress@gmail.com

원로칼럼



박중순 목사 (중신교회 원로)

담임목사의 부교역자론(상)

1) 인정해야 한다

그들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시차가 있을 뿐 그들도 정규 신학수업을 거쳤고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수했다. 물론 나이 차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사실과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들을 목사가 아닌 듯 대한다든지 용역회사 직원 다루듯 해선 안된다. 그건 내 자식이 부목사여도 안된다.

현재 필자의 두 사위가 모두 목사이면서 신학대학 교수와 선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사석이나 집 안에선 김 목사라든지, 김 교수라는 호칭을 쓴다. 그러나 공식자리에선 단 한번도 그런 식의 호칭을 쓴 일이 없다. 반드시 ‘김 목사님’, ‘김 교수님’이라고 불렀다. 스승, 선배, 담임목사라는 점을 내세워 ‘어이, 김 목사’, ‘야, 너 XX야’라고 부른다든지 공사 구분하지 않고 호통 치고 벼락 치는 것은 할량 모자라는 교양 탓이고, 자신의 약점을 덮으려는 일종의 콤플렉스 현상이다.

2) 내일을 보아야 한다

오늘은 부목사지만 내일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중대형교회 목회자가 될 것이고 한국교회 지도 그룹을 형성할 사람들이다. 오늘 은 숨죽이고 말 못하는 존재처럼 사역하겠지만 내일은 세계를 호흡하고 뻗어나갈 제 2, 3의 바울임을 인식해야 한다. 필자는 늘 이 점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부목사들을 차별 없이 대했고 형제처럼 지냈다. 물론 개인적 잘못이 드러나거나 시정확도가 발견되면 따로 불러 타이르고 함께 기도하고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때로는 직격탄을 날려 정신이 들도록 했다. 그들이 지금은 각처에서 크게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중대형교회 목회자로 섬기고 있다. 부목사는 동역자이지 종도 경호원도 아니다. 그들 속에 잠재된 내일을 보는 사람은 그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3) 리드해야 한다

부목사에게 전권을 맡기고 목회를 거의 위임하다시피 한 채 부흥회 인도, 학교 강의, 총회, 연합체, 사회활동 등에 전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양은 피동적 동물이라서 이끄는 사람을 따라간다. 그리고 두뇌 입력 시간이 경과하면 밖으로 나오는 목자는 잊어버리고 지금 곁에 서서대는 목자를 진짜 목자라고 인식해 버린다. 사고의 틀이 바뀌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나물뉘 내 양이 아니고 언젠가는 목자가 바뀌기를 기대하게 되어 버린다.

담임목사가 부교역자들의 멘토가 되고 리더가 되려면 최소한 존경이라는 기본 줄 아

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 직위와 서열상 그 앞에선 머리를 조아라겠지만 그 앞을 떠나면 다른 몸짓을 할 것이 뻔하다. 부교역자뿐이겠는가? 교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모으는 것도 똑같다. 목사의 용병에 감동하던 시대는 지났다. 학벌이나 위용에 매료되던 시대도 지났다. 배경이나 족보에 환호하던 세월도 물처럼 흘러갔다.

그가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가? 실행과 언행의 일치가 교인을 매료하고 동역자들을 감동시킨다.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너도 나도 아니다. 여기도 없고 거기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닮기 위해 피땀을 흘려야 한다.

부목사의 역할과 책임

부목사 그들은 어떻게 살고 일해야 하는가?

1) 최선을 다하라

필자는 중신교회 35년 목회 기간 동안 수많은 부목사들과 동역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최선을 기피하는 사람들로 대별된다. 화려한 학벌과 학위, 넓은 가문에 인맥 등을 움켜쥐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거만하고 태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이 있다. 담임목사를 앞잡이 보고 동료들 위에 군림하려 든다. 그리고 오래 못 견디고 제 갈 길로 가 버린다.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목회도 안되고 교수도 못되고, 기관장의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다. 그러나 세칭 가방꾼 짝고 지닌 것은 없지만 입술이 부르르코 코피가 터지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지금 어디 누구라면 다 알만한 중대형교회 목회자로, 대학과 신학교의 교수로, 교회기관의 대표로 답답질하고 있다.

2) 존경하고 배우고 야단맞으라

담임목사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세월 탓도 아니고 운세 탓도 아니다. 남이 모를 일들과 말 못할 사연들이 배경이 되었고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목사들은 겉에서 보이는 객관적 상황만으로 절로 되었다거나 운이 좋았거나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것으로 이해하려 든다. 목회에 우연이 어디 있는가? 목회에 산절로 수절로는 없다. 있다면 눈물, 아픔, 고통, 고뇌, 기슴앓이, 고독이 있을 뿐이다. 그들을 존경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배우고 때로는 야단도 맞아야 한다. 부목사가 담임목사 목회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장애물이 되면 안된다.

iamcspark@hanmail.net

WE THE MESSENGERS

2016년 12월 27-30일

지금 신청하세요

18세 이상 / 대학생

1 차등록 마감 \$250 10월31일
2 차등록 마감 \$300 11월30일
3 차등록 마감 \$350 12월23일

숙박/식사 포함

GKYM 키즈 (5세-12세) \$150 (고정회비)

GKYM 유스 일반등록과 같은 회비입니다 (13세-17세)

문의 www.gkym.org
rochestergkym@gmail.com

주강사/크리스찬 아티스트

 조지 배워 OM 청림지	 임 은미 케냐 선교사	 마이클 오 국제 로잔운동 총재	 유 제이 케이팝 스타
 김 혜택 뉴욕 중신교회 담임목사	 찰스 지머만 갈보리 교회 담임목사 및 비블리칼 신학교 교수	 노 승환 토론토 밀양교회 담임목사	 AMP 크리스찬 래퍼
 정 민웅 커비넌트 헬로섬 교회 담임목사	 박 형은 중앙 선교교회 담임목사	 백 승환 마이애미 커비넌트교회 담임목사	 장 종택 찬양 사역자
 노 희송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목사	 김 은열 뉴욕 중신교회 EM목사	 마크 최 뉴욕 IN2교회 담임목사	 브라이언 김 찬양 사역자

ROCHESTER '16 GLOBAL KINGDOM YOUNG ADULT MISSION FESTIVAL

LOCATION 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 HYATT ORGANIZATION GKYM INTERNATIONAL GLOBAL KINGDOM YOUNG ADULT MISSION FESTIVAL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작은 개혁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깨닫게 하신다.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 자신의 영적 실존을 보게 하셨고, 여거스틴에게는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셨다. 종교 개혁자 말틴 루터에게도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말틴 루터는 친구와 함께 부모님을 방문하고 돌아가던 중, 들에서 큰 벼락을 만났다. 그 벼락은 함께 길을 가던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큰 두려움을 느낀 루터는 성안나를 찾았고, 살려주시면 자신을 수도사로 드리겠다고 서원했다. 그 때부터 개혁의 웅지는 시작되었다고 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한다. 지난 10월 초에 함께 유럽목회연구원을 만들었던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주일의 설교 영상을 어느 분이 올려놓은 것을 들어보니 아주 패기가 넘치고 메시지에 힘이 있었다. 그 어디에도 죽음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는 설교였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된 것이었지만 내가 보기에는 갑작스런 사건이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

르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아니, 하나님을 평생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그렇다고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정말 헛된 것, 그리고 무익한 것에 집착하고 또 사랑한다. 고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 나는 주일날에 아내와 함께 예배를 인도하러 교회에 가는 여간에 고즈넉한 카페 집에 들어가 조반을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마시는 카프치노는 더욱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이제 포기하기로 했다. 외국이라는 이유로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주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부분을 이

제는 고치기로 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 주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 성공, 명예, 인기, 권력, 스페셜까? 그 어느 것도 아닐 것이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부분이 아닐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 이다"(시 119:56). 그리고 요즈음에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민 15:4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거룩함을 쫓는 일인데, 거룩함을 이루는 삶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나는 이런 부분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친구의 예기치 못한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서야 눈이 떠졌다고나 할까? 광대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심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겠지만 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즉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이런 부분에 더욱 집중하고 살아가야 할 나이가 된 것 같다. 그렇다면 지난 많은 세월들을 살아오면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 그 얼마나 많을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진정 순종하게 하소서. chiesadirona@daum.net

푸/른/초/장

김풍운 목사
(벽스카운티장로교회)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현대인의성경).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사람인 성도가 바라보는 눈에 대하여 생각하며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일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출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십시오"(현대인의성경)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의 순간들을 되새김질하듯이 돌아보며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뒤를 돌아보며 감사를 새롭게 합니다!

둘째는 옆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해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들보다 더 많이 붙잡혀야 했던 범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보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붙잡고 싶어서 잡히는 사람 없습니다. 벌금 내고 싶은 사람,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슬피 우는 가족들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들 모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과 신앙의 차를 운전해가며 늘 조심해야하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볼 때면 자신의 방향이나 속도 운전자세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는 앞을 바라보는 눈입니다(future). 때로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만나지만 복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비관적이지 않고 낙관적입니다.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능부가 추수할 때를 소망하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중동 U국에서 모인 중동선교사대회에 말씀을 전하러 다녀왔습니다. 주

생긴 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합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1절이 떠올랐습니다.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희를 행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차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깊이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떠나 대화장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는데 하루 늦게 오게 되어 모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 제 마음도 편해지고 선교사님들도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설교가 모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간에 중요한 기도제목이 있었는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쁨이 넘치게 사역지로 가게 되었다고 회장 선교사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먹구름 뒤에 언제나 태양이 있는 것처럼 앞이 캄캄한 현실 앞에 항상 계신 소망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 차가 막혀서 잠시 서있게 되었는데 길가 작은 풀밭에 까만 새들이 배여 마리 정도 내려앉아서 무언가를 찾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문득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런 적도 안하고 사는 새들을 보며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몸은 피곤하였지만 내 영혼은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13면으로 계속)

성도의 네 시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첫 번째는 뒤를 바라보는 눈입니다(p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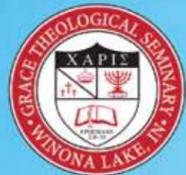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후회하고 슬퍼하는 모든 일의 결박을 예수님께서 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인 성도는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잘못과 허물을 가지고 자신도 남도 결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부족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중으로서가 아니라 자유한 자녀로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온전한 평안이 만들어 내는 감사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은 "여러분은

좋은 옷을 입고 남이 지어놓은 훌륭한 집에서 살게 될 때 옛날에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들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 예식을 합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면 처음으로 들려주는 말이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 노예였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기억하다"는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반추한다(ruminat)"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식동물이 정신없이 많이 먹고 나중에 한가할 때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옛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베풀어주신 많은 은혜

(present).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주위를 잘 살피며 운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늘 조심했고 믿음의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도 여러 번 이 일을 당부했습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도 믿음에 있나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신호 및 속도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가끔 경찰에 잡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먼저 불들린 위반자들로 우리 앞에 둔 분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은

아무리 인생 경험의 풍부해도 제대로 한손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자신만만하게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하면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blind spot)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블라인드 스팟(blind spot)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차선을 바꿀 때는 옆을 한번 보아야 안전한 경험을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스스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 부분들을 보며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한 분들 그리고 가까운 분들의 충고와 권면들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믿

일날 밤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뉴욕 케네디 공항으로 가던 중 길이 막혀서 비행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출발하였는데 늦어져서 공항근처에서 자고 다음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대화 임원에게 형편을 말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이 몹시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실수한 것이 아닌데 길이 막혀서 비행기를 못 타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는 길이 막혀서 하루 늦게 가게 되어서 제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순간적으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GRACE THEOLOGICAL SEMINARY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ck Lee

On Campus Courses 2017 불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체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April 24-28(4월 24-28일) On campus or Chicago, IL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Dr. Stephen Park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미국 민주주의 역사와 사회정의의 태동, 그리고 정당의 대립구도(상)

오늘은 미국 역사를 돌아보며, 미국 안에서 발생했던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알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한국도, 매우 진보적인 정치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 국가의 역사까지도 왜곡하여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국가적 위협이며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온통 혼돈스런 정보들로 가득 찬 오늘, 역사를 바로 알고 미국 안에 있는 교회들의 영적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 "사회정의-노예해방"을 위해 싸운 크리스천들의 희생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

있습니다. 그 후 1775년에 American Revolution War 알려진 미국 독립혁명이 영국을 상대로 발생하였고 그 전쟁은 8년간 지속되었습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의 탄생

그리고 드디어 1776년 7월 4일에 미국 국회는 그 유명한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작성하고 그때 바로 United States of America 라는 국가, 미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마치 한국에서는 일제시대에 독립했던 8.15 광복절과 같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독립혁명이 끝남과 동시에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제일 먼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지지하던 민주당 쪽에서 노예 해방을 계속 반대하고 나왔기에, 거기에 대항하는 "노예해방운동가들(영국식민지 때부터 크리스천들로 결성됨)"이 결국 '공화당'이라는 새로운 정치정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은 공화당이 결성되고 몇 년 안된 1861년에 첫 공화당출신의 대통령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1861년 같은 해에 결국은 노예해방을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Civil War, 남북전쟁입니다.

노예제도를 허용하는 미 남부 지역의 주들은 남부연방(Confederate States of America)을 결성하고 그 당시 노예들을 해방

1867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로서는 과격이라고 할 수 있는 150명의 흑인과 20명의 백인으로 이뤄진 텍사스 주의 공화당이 휴스턴에서 결성된 일입니다. 이를 비롯해 남부지역의 다른 많은 주에서도 흑인들을 위주로 한 공화당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다음해인 1869년 제 41대 국회에서는 공화당 소속의 흑인 남성이 흑인으로는 최초로 하원의원으로 선출됩니다. 민주당에서는 65년 이후인 1934년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최초의 민주당 출신인 흑인 하원의원이 선출되었는데, 그동안 공화당에서는 무려 23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남부지역의 주들이 헌법 제 14조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이에 맞서 1870년 국회에서

노예제도에 맞서 탄생한 공화당의 첫 대통령으로 링컨 선출 1869년 공화당 첫 흑인의원 탄생, 민주당은 1934년에야 1964년 통과된 시민권법, 공화당 80% 민주당 64% 지지

절, 영국의 법에 따라서 노예제도는 미국의 13개 콜로니(Colony)에서 합법화 되어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순간이었다고 역사가 기록합니다.

17세기에 들어서서 기독교 복음주의 신교도들이 노예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에 들어서는 노예의 수가 6백만 명에 달하였는데, 역사는 당시 '노예제도를 지키려는 자들'과 '노예를 해방시키려는 기독교인들'의 처절한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30-40년에 일어났던 First Great Awakening(영적대각성)으로 잘 알려진 신앙부흥운동의 주된 안간중 하나도 노예제도의 폐지였다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17세기, 18세기 때 얼마나 노예해방을 위해 노력하였는지는 역사를 통해 볼 수

통과시키고, 펜실베이니아 주를 뒤따라 대부분의 북미주에서도 노예제도 폐지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808년에 들어선 토마스 제퍼슨(미국 제3대 대통령) 정권아래 노예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1854년에 미국 건국당시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민주당(처음에는 Federalist였음)은 당시 노예해방운동가들이 만들어놓은-흑인노예들이 다른 주로 팔려서 이주하는 것을 금하는 '미주리 타협(Missouri Compromise) 법안'을 다시 되돌리고자(overturn)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Kansas-Nebraska Act, KBA)'을 새롭게 만들어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KBA)은 미국 내에 노예가 더 확산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화당"의 탄생-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노예해방

코자 했던 "자유 주(Free States)" 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노예들을 해방하려는 자유 주들은 연합하여 그들에 맞서 4년간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공화당 출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지휘아래 연합군은 남부연방군에게 승리하고 마침내 노예제도는 1865년에 폐지되는 역사적 획을 그치게 됩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지휘아래, 노예 해방령(Emancipation Proclamation)이 선포되었고, 남북전쟁이 끝난 1865년에 들어 노예해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수정헌법 제13조(13th Amendment)가 제안되었는데, 이 법안에 공화당원이 100% 찬성, 민주당원 23% 찬성으로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흑인 노예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주어진 것이었죠.

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 15조를 공화당 100%, 민주당 0%의 지지율로 통과시켰습니다.

1865년 테네시 주에서는 흑인의 동등한 권리를 반대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미국 남부 주들의 백인 비밀단체 Ku Klux Klan(KKK)가 결성되었는데, 1872년에 들어서야 KKK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875년에 통과된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76, or Enforcement Act)은 흑인들에게 숙박, 대중교통, 재판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미국의 연방법(Federal Law)입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원의 99%, 민주당 0%의 지지율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1883년에 이르러 이 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6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번씩 전도하려 나갑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꼭 죄를 지적해야 하는지요? 목사님은 상대방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죄를 지적하지 않고 점잖게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요? -토랜스에서 이정은

A: 좋은 질문입니다. 인간의 구원론을 논하기 전에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론입니다. 이것은 환자가 병에서 고쳐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얼마나 그 병이 심각한지를 의사의 검진을 통해 알아야 자신의 병을 고쳐 구원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되고 추악한 죄인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부어 있지 않아서 손들고 옵니다"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손을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인간은 죄인임을 지적하고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18절은 '불경건한 죄'라고 말합니다. 이 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알게 하고 전도해야

경건의 죄를 헬라어로는 "아세비이아"란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즉 종교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대문자를 써서 "SIN"이라고 씁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하는 죄가 아닙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큰 죄입니까? 엄연히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데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종교적인 죄에서 인간의 다른 죄들이 파생됩니다. 인간에 대한 죄를 로마서 1장에서 '불의'라 합니다. 헬라어는 '아디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소문자로는 sins라고 합니다. 불경건의 죄에 의해 불의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인간은 도덕적으로 그 행위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굴을 캐어 생업을 이어가는 분이 굴을 캐어 껍질을 벗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굴속에는 굴은 없고 물고기 한마리가 들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약 7cm되는 물고기가 죽어가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안의 굴을 다 뜯어 먹은 것입니다. 굴이 껍질을 벌리고 있었을 때 물고기는 굴 알맹이를 먹으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배불러 있을 때 굴의 껍질이 닫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나오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어부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물고기는 죽어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너무나 유혹적입니다. 현혹적 이기에 금방 따라 들어가면 쾌감이 있을 것처럼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파먹고 있는 동안 투쟁은 닫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즐기러 들어갔지만 결국은 자신이 노예가 되어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디씽습니다. 인간은 모두 이 죄의 유혹에 빠져 굴껍질 안의 물고기처럼 멸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구원론을 설명하기 위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통해 먼저 인간의 죄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치며 죄를 깊이 다룹니다. 자신의 병을 알아야 자신의 병을 고칩니다.

한국최초선교사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 연합 예배 및 선교찬양제 (선교 현지지도자 양성 교육위한 특별장학금 마련)



일시: 11월 13일(일) 오후 5시 장소: 프라미스교회

- 참석 대상: 언더우드선교사를 사모하는 모든 분(무료)
•찬양 참가팀: 연세대 뉴욕동문 중창단, 월드밀알선교찬양단, 뉴욕장로성가대,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프라미스교회성가대, Joyful합창단, Promise Children's choir, Delight 어린이국악선교단
•기념특별인사: 언더우드 선교사 4대 후손
•공동 주관: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연세대 신과대학 뉴욕동문회,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미동부동문회, 미동부 크리스천아카데미
•특별 후원: 단비기독교 TV
•후원: 뉴욕한인교회협의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커네티컷한인교회협의회, 뉴잉글랜드지역한인교회협의회, 대필라델피아지역 한인목사회, 연세대학교 뉴욕동문회
•후원 언론사: 기독교뉴스, 기독교저널, 미주경제, 미주크리스천신문, 아멘넷, AM1660KRadio, KBN, KCBN
•입장권 문의: 718-213-8645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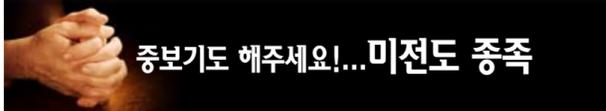
Table with subscription rates for 1 year: USA \$100, Canada \$110, Korea/East Asia \$190, Europe \$190, N. America \$190, Africa \$190.

Subscription form fields: Name, Address, Phone, Email, and checkboxes for subscription type and language preference.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하루쿠(HARUKU)



300여개의 뚜렷한 인종들이 있으며, 대부분이 무슬림이다. 남동쪽 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들은 호주, 유럽, 아시아 대륙 사이의 해로에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섬들은 태평양과 인

도양 사이에 연계해 있다. 하루쿠종족은 몰루카스(Spice) 섬에 있는 한 작은 섬에 위치해 있다. 이 섬의 연계는 인도네시아의 동쪽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술라웨시(Sulawesi)와 뉴기니아(New Guinea) 사이에, 그리고 티모르(Timor)와 필리핀(Philippines)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섬들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 연계 안에 있는 북쪽 섬들은 할마헤라(Halmahera, 모루카스에서 가장 큰 지역), 모로타이(Morotai), 테르나테(Ternate), 티도레(Tidore), 마키안(Makian), 바칸(Bacan), 오비

(Obi), 술라(Sula)이다. 남쪽 섬들과 중앙의 섬들은 부루(Buru), 세람(Ceram), 암본(Ambon), 반다섬들(the Banda Islands), 카이(Kai), 아루(Aru), 탄임바르(Tanimbar), 바바르(Babar), 키사르(Kisar), 그리고 웨다르(Wetar)를 포함한다.

삶의 모습

북쪽 몰루카스의 정향나무와 중앙 섬들의 육두구는 유럽이 몰루카스 섬에 대해 듣기 전에 아시아에 거래됐었다. 1511년 포르투갈이 도착함으로써 수십년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싸움들이 이 기간 동안 많은 생명을 잃게 했다. 승리했던 독일은 많은 이익을 얻었으며, 그러나 18세기 말엽에는 향신료 상업이 거의 사라졌다. 그 결과 몰루카스는 더 이상 그 가치를 가질 수 없었다. 인도네시아 문화는 많은 다양한

문화가 함께 합쳐진 문화다. 인도와 힌두와 불교 사상이 인도네시아에 깊은 영향을 줬고, 그 나라의 건축과 조각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아라비아 영향은 13세기 이래로 번성했으며, 대부분이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라 영향을 받았다. 여러 섬들이 또한 남동쪽 아시아와 폴리네시아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중국과 독일 사람들의 유입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의 기후는 열대성기후이며, 두 차례의 우계가 있다. 11월부터 3월까지의 우기와 6월부터 10월까지의 건기가 있다. 이 기후는 이 우계 사이에 좀 더 온화하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화산의 흙은 농작물이 자라기에는 이상적이다. 이는 숲이 풍부하고 땅의 2/3를 차지한다.

지진은 몰루카스에서 자주 일어

나며, 대부분의 섬들은 산악지역이다. 테르나테와 반다와 같은 다양한 섬들은 활화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탄임바르와 아루는 낮고 습지가 많다. 몰루카스의 기후는 열대성이며, 다양한 지역에서 매년 80-150 인치의 비가 내린다. 어떤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섬들이 전반적으로 덮고 있는 열대다우림이 고르게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지금 땅이 경작되고 있다. 또한 사반나의 땅들 연안에는 종종 망그루브 늪지대가 주변에 있다.

기독교인과 무슬림들은 연안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신앙들을 갖고 있지만, 내륙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령신앙인들이다. 음식은 사냥과 어업과 사고(sago)풀을 모아서 음식을 얻는다. 코코넛은 광범위하게 자라고, 주된 수출은 코프라(copra)와 숲에서의 생산물

과 향신료와 생선들이다.

신앙

종교의 자유가 인도네시아 의회에 의해 보장됐다. 다양한 형태에서의 이슬람은 이 국가의 가장 지배적인 신앙이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다. 하루쿠는 95%가 무슬림일지라도 4%는 기독교인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하루쿠는 그들 자신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어떤 기독교인 자원을 갖고 있지 않고, 현재 그들에게서 일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없다. 성경번역과 그들 언어로 된 예수 영화 모두가 필요하다. 열심히 중재와 선교사역을 믿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 필요할 것이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먼 지역의 섬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루터교, 가톨릭과 '499년만의 화해' 논란

루터교와 로마 가톨릭이 화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교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루터교가 개혁정신을 포기하고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루터교연맹(LWF)은 31일 스웨덴 룬트에서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알리는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엔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석해 가톨릭과 개신교 간 화해의 약속을 내놨다. 무늬 유난 LWF 의장과 교황은 가톨릭과 루터교 대화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종교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의 '공동의 길' 선언에도 서명했다.

기독교한국루터회 원종호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국장은 "루터교가 가톨릭 교리나 전통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자 간의 하나 됨을 찾아보자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루터교와 가톨릭 사이에는 성모 마리아나 성례 이주 등 신학적으로 좁혀질 수 없는 이견(異見)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국장은 이어 "유럽인들은 역사적으로 신·구교 간 종교전쟁 등을 거치며 종교의 진정한 가치는 평화와 협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루터교는 에큐메니컬 정신에 입각해 로마 가톨릭과 대화·공조·협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루터교와 로마 가톨릭의 만남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양측은 50여년 전부터 대화와 신학 교류 등으로 접촉해왔다. 1967년 가톨릭 교황청과 LWF가 대화를 시도한 이후, 99년 10월 '칭의론(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됨)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합의하면서 거리가 좁아졌다. 또 세계가리교회협의회도 2006년 '칭의의 교리에 대한 교리적 합의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범기독교적 화해 무드가 조성됐다.

그러나 보수적인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이 같은 결정들에 완전히 수긍하기는 어렵다. 특히 '칭의론에 관한 공동선언문'의 경우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수정하지 않은 채 개신교의 칭의론을 수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칭의론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핵심인데, 가톨릭은 칭의에 성화(구원받은 후 기록하게 되는 것)를 포함시킨다. 이 밖에 성경의 권위나 성례전, 교회, 연옥 등과 같은 교리도 개신교와 다르다.

합동신학대학원대 이승구(조직신학) 교수는 "칭의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만 의존한다는 공동선언 내용은 동의한다"며 "그러나 칭의와 성화를 혼합해 이해하는 것, 세계중생설(세례를 통해 구원받음) 등은 문제"라고 말했다.

프랑스, 급진 이슬람 교리 전파 모스크 4곳 폐쇄

프랑스 정부가 급진 이슬람 교리를 전파하는 이슬람 사원 4곳을 추가로 폐쇄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파리제앵이 3일 보도했다.



베르나르 카즈노브 내무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이슬람 사원 4곳을 폐쇄했다고 발표했으나 사원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카즈노브 장관은 "이곳에서는 종교의 이름을 빌려 실제로는 과격 이론을 전파하는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고 폐쇄 이유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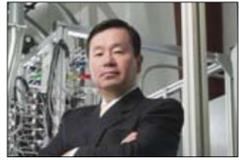
지난해 11월 130명이 숨진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증오와 폭력, 테러를 부추기는 종교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년간 이슬람 사원 수십 곳을 폐쇄하고 프랑스 시민이 아닌 이맘(이슬람 성직자) 등을 자국에서 쫓아냈다.

프랑스 싱크탱크인 폼테뉴 연구소에 따르면 프랑스 내 무슬림 수는 전체 인구의 5.6%인 370만 명으로 추산된다. 현지 일간지에는 이슬람 사원이 2천200개가량

있다. 지난해 이후 프랑스에서 발생한 잇단 테러에서 범인들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자란 젊은 무슬림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급진주의 이슬람 교리를 설교하는 이슬람 사원이나 교도소에서 급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주리대 첫 아시아계 총장, 한국계 문최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미국 미주리대학교 설립 177년 만에 첫 아시아계 총장으로 한국계를 임명했다.



ABC방송은 미주리대 4개 캠퍼스를 이끄는 제24대 총괄총장에 한국계 15세 문 최(52·사진)가 임명됐다고 2일 보도했다. 그는 현재 코네티컷대 공대학장을 맡고 있다. 최 신임총장의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미주리대 총장직은 1년 동안 비어있었다. 전임자인 톰 울프는 지난해 학내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분노한 학생들은 단식투쟁 등 시위를 벌였고, 교수진과 대학 출신 정치인들까지 가세했다. 결국 울프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전 총장은 사임했지만 아직 학내 인종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 최 신임총장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1년 전 소요사태를 의식한 최 신임총장은 이날 "교수진과 학생, 직원들의 목소리는 나에게 소중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관점을 듣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흑인 학생 중심의 인권 단체인 '1950년을 격정하는 학생들'이 전달한 요구사항도 숙지했다고 전했다.

총장직이 1년 만에 채워지면서 최 신임총장에 대한 외부의 기대도 크다. 제이 닉슨 미주리 주지사는 이날 최 신임총장을 만나 "지금 시기에 당신을 총장에 임명한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격려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수잔 헵터 코네티컷 대학 총장도 "최 신임총장은 똑똑하고 끈기있는 리더"라고 평가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최 신임총장은 어렸을 때 미국에 왔다. 젊은 시절에는 시카고에서 가족 사업에 종사하다가 1987년 일리노이대학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프린스턴대학에서 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땀다. 대학에서는 24년째 일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일리노이대학에 재직했고, 드렉셀 대학을 거쳐 2008년 코네티컷 공대로 옮겼다. 공대학장은 2012년부터 5년째 맡고 있다.

파키스탄 법원 '아프간 난민소녀' 석방 거부

32년 전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 표지에 등장한 난민 문제를 환기했던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파키스탄에서 불법 신분증을 만들어 생활하다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석방 여론이 고조됐지만, 법원이 석방을 거부했다.



3일 파키스탄 일간 돈(DAWN)에 따르면 페샤와르 특별법원은 가짜 신분증을 만든 혐의로 지난달 26일 파키스탄 연방수사국(FIA)이 구속한 아프간 출신 난민 여성 샤르바트 굴라(44)의 보석 신청을 전일 기각했다.

법원은 굴라의 보석 신청 사유로 건강과 생계 문제 등을 언급했지만 법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굴라의 보석이 기각되면서 최근 난민 처우 문제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파키스탄 정부는 다소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앞서 차우드리 니사르 알리 칸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굴라 사건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보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아프간 정부는 굴라가 석방되지 못하자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직접 개입해 달라고 파키스탄에 요청했다.

오메르 자킬할 파키스탄 주재 아프간 대사는 굴라의 보석이 기각된 뒤 "이번 결정은 아프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 나라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샤리프 총리가 직접 개입해 굴라의 석방을 지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굴라는 12살이던 1984년 소련군 폭격에 부모를 잃고 파키스탄 난민촌에 머물던 중 미국 유명 사진작가 스티브 맥커리의 눈에 띄어 사진을 찍혔다.

강렬한 녹색 눈동자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굴라의 사진은 이듬해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지를 장식했고 그의 얼굴은 난민의 슬픔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떠올랐다. 맥커리는 2002년 굴라를 다시 찾아가 세월의 흔적이 드러난 그녀의 얼굴을 또 한번 촬영하기도 했다.

굴라는 2014년 '샤르바트 비비라'는 가짜 이름을 이용해 파키스탄 신분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14년이하 징역으로 처벌된다.

한편 맥커리는 "파키스탄 당국이 이번 사건을 통해 아프간 난민들에게 누구든 범법 사실을 밝혀 처벌할 테니 어서 파키스탄을 떠나라는 메시지를 전하러 한 것 같다"면서 굴라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등록난민 140만명 외에 100만명의 비등록 아프간 난민 처우에 어려움을 겪는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불법 신분증 소지 사례 6만여건을 적발하는 등 난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6만명 이상의 아프간 난민이 파키스탄에서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최근 밝혔다.

미 싱크탱크 보고서 '미국, 주한미군 덕분에 방위비 절약'

미국이 주한미군 덕분에 방위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는 내용의 분석 보고서가 미국의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미 싱크탱크 '아메리칸액션포럼(AAF)이 1일 펴낸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군 주둔 비용의 41%인 7억7천5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 59%, 11억 달러는 미국이 부담한다. 일본은 주둔 비용의 50%인 20억 달러를, 독일은 18%인 9억700만 달러를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한국, 일본, 독일 3국 모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보다 미국 입장에서 비용이 절감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군을 미국 본토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미국은 실제로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일본에 항공모함 기지가 없다면 더 많은 항공모함 전투군(CBG)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벤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 4월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상당히 부담하고 있다"며 미군이 미국에 주둔하는 것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보수매체 워싱턴프리비전은 동맹국들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퍼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거론하며 "동맹국은 이미 방위비 부담금을 다 냈다"며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해외 미군 주둔 없이 파워를 유지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올해 지중해 건너다 숨진 난민 4천명 육박

올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오려다 숨진 난민 수가 4천 명에 근접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1일 펴낸 자료에서 올해 10월 말까지 지중해에서 숨진 난민 수가 3천94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지중해에서 숨진 난민 수는 이미 지난해 지중해에서 숨진 전체 난민 수 3천777명을 훨씬 넘어섰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 수는 1년 사이에 크게 줄었지

만, 지중해에서 숨진 난민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해 1-10월 지중해 루트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은 73만명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유입된 난민 수는 33만4천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유엔은 지중해에서 난민 익사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리비아 해안에서 활동하는 난민 브로커들이 작은 보트에 무리하게 난민들을 태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전 세계에서 각종 사고, 질병으로 숨진 난민 수는 5천25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에는 한 해 동안 5천729명의 난민이 숨졌다.

WP "한국의 괴이한 스캔들이 미국에 큰 손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정권이 흔들리면서 미국이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스캔들의 최대 승자는 북한과 중국이며, 차기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의 골칫거리를 하나 더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WP는 7일 사실을 통해 "한국의 괴이한(bizarre) 스캔들이 미국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WP는 박 정권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도입을 결정하고 일본 아베 신조 우파 정권과의 위안부 문제 합의 등을 이끌어내면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스캔들로 정치적 타격을 입으면서 자칫 동북아의 한·미·일 동맹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WP는 최순실 게이트가 미국 입장에서 최악의 타이밍에 터졌다고 분석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레임덕을 맞은 틈을 타 중국은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필리핀은 탈동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핵탄두 소형화에 열을 올리면서 동북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미국과 더불어 강력한 대북 정책 기조를 이어온 박 정권의 타격으로 대북제재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정치권은 이번 게이트로 박 대통령이 물러나고 야당이 내각을 차지할 경우 한·미의 동반자 관계도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임기 말의 오바마 행정부는 사실상 외교 문제에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어 미국의 새 대통령이 들어설 때까지 동북아 정책이 표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5면에서 계속)

그 다음에 1876년에 들어서 하원은 민주당원들에게 장악되었고 1957년에 이르러까지 그 어떤 공민권 법률도 더 이상 통과되지 않았습니니다. 1892년에 들어선 하원뿐 아니라 상원, 백악관까지 민주당에게 장악되었고, 그 후 공화당의 지지로 통과되었던 법률들이 차례로 폐지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Jim Crow Laws(흑인 차별법), poll taxes(인두세), literacy tests(문맹테스트법)와 같은 현상들이 각 주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내 인종차별을 금지시킨 미 연방법원의 Brown v. Board of Education 결정을 뒷받침하는 시민권 법안(Civil Rights Act of 1957)이 1957년에 공화당 92%, 민주당 54%의 지지율로 통과되었습니다.

1964년에 통과된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은 인종, 민족, 출신국가, 종교, 성별에 대한 차별을 불법화시켰습니다. 지지율은 공화당 80%, 민주당 64%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예해방을 통해 공화당으로 시작된 흑인들이 어떻게 민주당으로 옮겨지게 되었을까요? 다음에 계속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사까지 왜곡되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뇌되는 우리지녀들의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과 어른들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도, 교회도, 인본주의와 진화론에 빠져 말씀의 원리원칙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더욱더 확실한 때입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14. 박용만

‘용필’로도 불린 박용만은 1881년 7월 2일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궁전리에서 태어났으나 조실부모한다. 그는 박영호 등 개화파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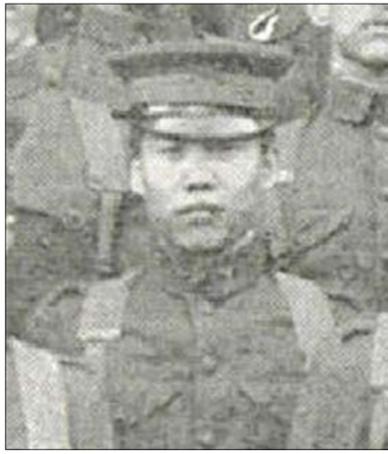


박용만

들과의 교분과 상동감리교회 열릿 청년회를 통하여 신앙과 민족의식을 키웠다. 그가 1904년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반대 투쟁에 항거하다 한성감옥에 투옥되었는데 활빈당 사건으로 투옥된 데 이어 두 번째 투옥이었다. 그는 이 감옥에서 이승만과 정순만을 만나 의형제를 맺어 이른바 ‘삼만’이 된다.

미국 북감리교 한인 지도처

소년병학교 교장박용만, 1911년 석방된 박용만은 23세가 되던 1904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그가 1905년 미국 북감리교 캘리포니아 연회 전도사 Local Preacher로 임명받는다. 그는 안정수와 더불어 샌프란시스코와 인근 오클랜드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17명의 한인 동포를 찾아가 전도하고 돌보는 교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가 네브라스카 주 링컨 고등학교 가을학기에 입학하기 위하여 떠나던 1905년까지 사역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년 미만일 것이다. 미국 북감리교 태평양 일본인 선



박용만 네브라스카주립대학 학도병, 1910년

명의 한인 기독교인이 있었고, 이 중 18명이 등록교회이었고, 22명이 세례교인이었으며, 15명이 학습교인이었다.

한인소년병학교

박용만은 1908년 9월에 네브라스카 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하여 1910년 12월까지 공부하다가 헤이스팅스 대학으로 전학을 가서 한 학기 공부한 후 다시 복학하여 1912년 8월에 졸업하고 문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본 대학에 재학 중 본 대학 학도병이었다. 이곳에서 이수한 ROTC 과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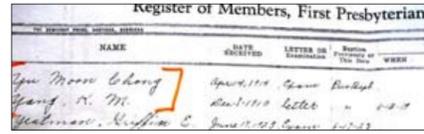
소년병들아, 짓쳐 나가세./이 몸미주 땅, 중원을 지키는 사자인가, 문지기런가/승냥이 때으르렁 대는 저 삼천리강산/아아, 맨발로 누더기로 남루하게 찢기며/뚝뚝 피 흘리며 떠나야했던 고토여./나 이대로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총칼 갈아 시퍼런 날로 깎으리./원수들을

▲장대사업 - 네브라스카 린콘에서 공부하는 박용만씨가 열어 학생을 단합할야 그곳에 피속사를 설립하고 그 집에서 학생들의 피속도하며 유일에 레비도 흰옷을 갖는티 규모는 군복을 갖는 뜻차일후에 소용을 예비한다하니 과연 큰사업이더라

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는 ‘K.M. 양’은 1910년 12월 9일에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로부터 본 교회에 이명하였고, 정유문은 1914년 4월 14일에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다.

무형국가론

박용만은 1911년 2월에 신한민보 주필을 맡았는데 신한민보는 대한국민회의 기관지였다. 그 해 그가 신한민보에서 주창한 ‘무형국가론’이 1912년 11월 대한국민회 중앙총회를 결성케 만든다. 이는 북미, 하와이, 멕시코, 러시아, 중국 각지에 지부를 둔 최초의 임시정부라 할 수 있는 한인 최고 통일기관이다. 그가 1911년에 간행한 ‘국민개병론’과 ‘군인수지’에서 그의 무력 건국을 읽을 수 있다.



헤이팅스 제일장로교회 교인명부의 유문정과 양 K.M.

1905년 미북감리교 CA 연회전도사로 임명·네브라스카서 ‘한인소년병학교’ 설립
신한민보 주필로 ‘무형국가론’ 주창·1913년 ‘대조선 국민군단’ 창설
1928년 북경서 대륙농간공사 사업 추진 중 동족에게 피살



소년병학교 교장박용만, 1911년

유희한 등 한인소년병학교 첫 졸업생 13명이 배출된다. 한인소년병학교는 그가 1911년에 펴낸 ‘국민개병론’의 결실이기도 하다. 소년병학교 단가의 가사에서 박용만의 애국심을 읽을 수 있다:

박용만 네브라스카주립대학 학도병, 1910년
표본으로 그는 1909년 13명의 학도를 모아 네브라스카 주의 커니에서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듬해 한인소년병학교는 헤이스팅스 대학 구내로 이전한다. 1912년에 3년간의 훈련을 마친

물리쳐 갈아 뒤엎어/기어코 저 함일 가파른 언덕, 풀밭에 함성 울려/기어이 깃발 꽂는 날, 목 터져라 외치리/조선 사나이의 기개를.

헤이팅스 제일장로교회

1909년 10월 20일자의 대도에 따르면 교장인 박용만은 한인소년병학교에 성경과목을 개설했고, 학교 내의 기숙사에서 소년병 학생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따로 드렸다. 샌프란시스코와 그 인근에서 전도사로 임명받아 잠시나마 사역했던 그의 영적 지도가 이곳에서도 적용되었을 수 있다. 소년병 학생 중에는 헤이팅스 대학 구내의 헤이팅스 제일장로교회의 교인으로 등록된 자도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그의 신앙지도



신한민보, 1928년 11월 1일

‘산넘어 병학교’

1913년 박용만은 5,000명의 한인 동포들이 거주하는 하와이로 이

주하고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듬 해 6월 그는 호놀룰루의 한 파인애플 농장을 임대하고 동포 청년들이 공동 경작하면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하고, 같은 해 8월 군단 부속의 속칭 ‘산넘어 병학교’를 창립하면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해에 전덕기 목사가 105인 사건 후 옥중 고문 후유증으로 소천했다. 입학한 130여 명 중 대부분이 대한제국의 ‘광무군인’들이었는데 조선 독립전쟁에 투입될 병력이 된다.

1915년 그가 아메리카 혁명사를 한글로 번역하고 출판하여 무장투쟁독립론에 불을 붙였지만 위의 한인군단은 1916년 농장주의 압력으로 문을 닫게 된다. 그러나 박용만은 하와이 국민회의 기관지인 신한국보 (후에 국민보로 개칭) 주필을 맡아 무장독립노선을 펼친다.

1917년 상해의 신규식과 조소양 등과 함께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여 임시정부의 수립을 계획하였고, 뉴욕에서 개최한 약소국동맹회에 참석하여 조국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한 박용만은 이듬해 국제정세 정보를 목적으로 ‘태평양시사’를 창간하고 주필이 된다. 1919년 3월 그는 호놀룰루에 국내 및 중국 등지의 독립군단과 통일을 꾀하기 위한 통일군사정부인 ‘대조선 독립단’ 하와이지부를 창단하고 ‘태평양 시사’를 인수하여 기관지로 삼았다.

독립운동의 방략에서 무장투쟁론의 박용만은 외교론의 이승만과 같음을 겪으면서 ‘형제’에서 ‘정적’으로 치닫다가 1919년 5월에 하와이를 떠난다. 그는 그 해에 수립한 상해임시정부의 초대 외무총장에 선출되나 부임하지 않고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하고 신채호 등과 함께 ‘군사통일촉성회’를 결성하고 무력 투쟁의 독립운동에 가담한다.

소천

1927년 중국을 떠나 호놀룰루로 온 박용만은 인근 팔라마 지방에 우성국어학교를 설립하고 직접 초등국어교과서를 편찬하여 교재로 사용하였다. 1926년 이후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북경에서 대륙농간공사 사업을 추진하던 중 1928년 10월 17일 그는 동족의 총을 맞아 비통한 죽음을 맞고 향년 47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일본과 미국, 하와이,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넘나들며 쌓아온 나라 사랑이 1995년 그에게 추서된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담기에는 너무나 컸다.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용만 기념재단’이 설립되어 그의 업적을 기린다. damien.sohn@gmail.com

초대합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후원자의 밤

초청의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사역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이 사역에 동역해오신 후원자 가족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느 선교사 사역자들보다도 아름답고 훌륭한 사역자들입니다. 말없이 꾸준히 함께 사역해오신 여러분들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한해를 보내며 여러 후원자 가족 분들과 이 사역에 관심 있는 이웃을 함께 초청하여 사역의 열매들을 서로 나누고 우리의 정성이 담긴 작은 만찬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꼭 오셔서 서로를 격려하고 새해의 사역을 함께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2016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
일시: 2016년 11월 27일 오후 6시
장소: 늘기쁜교회(김홍석 목사 시무)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
문의: 646-270-9771, 917-656-0176
Email: breadgospel@gmail.com

주후 2016년 11월 1일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전희수 목사

성경도 신앙 (17) 청교도들의 예배 (8)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4) 칼빈과 청교도주의에 있어서 예배의 방법

가) 제2계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통해 자신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밝히고, 제2계명을 통해서도 자신이 어떻게 예배할지를 교훈하셨다. 2계명은 인위적인 수단을 도우안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거짓으로 위장된 불경건을 행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므로(강요2장11, 18),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경배가 미신적인 의식으로 모독되는 것을 막기 위함"에 있었다(강요2장8, 17항). 곧 우리의 우둔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우치한 생각으로 오염되어 외형적인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제2계명을 주신 것이다.

칼빈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며, 보이지 않으시며, 만물을 포용하시는 분"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은 상상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냄으로 조물주 하나님을 피조물과 하려고 하기 때문에(롬1:20), 제2계명을 주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마치 어떤 형상이나 우상의 모습으로 형용하면 표현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라"고 권하였다.

칼빈은 제2계명이 하나님을 성화하라고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그리스도인은 피조물과 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이신 진리이신 그분을 찬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듯한 머리에 의해 이해될 수 있거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그분에게 육체적인 어떤 것을 감히 부과하려 하거나, 감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도 안된다.

더구나 제2계명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히 인간의 감각적 지각에 예측시키려는 시도, 곧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무모한 짓을 억제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형상을 경배하는 것을 금하므로(강요2장8, 17항), 로마전주교회나 루터파 교회처럼 성화나 성상을 사용하거나 숭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런 예배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나) 제2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로마전주교회

로마전주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패한 인간들은 주 예수 외에 다른 중보자를 찾고 있으며, 성자들이나 천사들, 특히 동정녀 마리아를 모든 은혜의 원천인 것처럼 간주하며, 그의 공로로 인하여 주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믿는다. 그러므로 성자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중보직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제2계명은 인간의 죄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어졌으므로, 성도들은 죄성에 의하여 하나님을 찾지 말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이 예배에 있어서 성화나 형상의 사용을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전주교회나 루터파 교회에서는 성화를 평신도들의 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날도 사용을

상징화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칼빈의 사상은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이 되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말씀을 통해 명명한 것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를 섬겨서도 안 된다고 했다(96문). 또한 하나님을 어떤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레 수 없으며, 그려져서도 안 된다. 피조물을 그림으로 그릴 수는 있으나 예배의 상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조물의 모양을 만들거나 그것과 비슷한 것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였다(97문).

신조는 교회에서 유아교육을 위해 성화나 성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함과 아울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생명이 없는 형상에 의하여 배우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살아있는 말씀선포를 통해 교육받은 것을 원하시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게 되려고 하서는 안된다고 지

제2 계명은 외형적인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 인위적 모든 의식 배척, 성경 제시대로 신령한 예배드리기 주장

관장한다. 성화가 문맹자와 어린이의 신앙교육에 유익하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위해 하나님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성화를 이용하여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런 사상이 내포하는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했다: "우상들이 교육받지 못한 자들의 책이라고 칭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자. 비록 전적으로 헛된 것이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무를 꿩은 유일한 이유가 경배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형상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 특히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의인화 된 신을 제시하여 주는 것 외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것들은 가장 타락한 정욕과 음탕함의 본보기 외에 무엇이겠는가?"

칼빈은 성화를 사용해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결국 신자들을 미신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이 고안한 모든 상징물은 참된 경건을 가르치거나 고무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사람들을 현혹하여 미신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이 육체적이요 맹목적이며 무능하므로 형상이나 새긴 우상을 통한 교육은 신앙을 쉽게 미신적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청교도 개혁주의의 2계명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성화나 성상의 모양으로

적함으로 교육 목적으로 성화 사용하는 것을 엄히 금하였다(98문).

라)제2계명에 금지된 것에 대한 입장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작성한 '대요리문답서'는 칼빈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나타낸다. '대요리문답서'는 제2계명에 금지된 죄는 하나님께서 진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삼위 진부나 그 가운데 어느 한 위 표현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외적으로 피조물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금한다고 서술함으로 마음속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상상하는 것까지 금하였다(109문).

이와 같이 청교도들은 형상이나 성화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비판하고, 오직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신령과 진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청교도들과 예술 활동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체를 만들거나 예배하는 것을 금하였지만, 예술 활동을 금한 것은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조각이나 그림으로 상징화하는 것을 배척하고

그분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상상하는 것은 금하였지만, 신적인 상징이 아닌 자연 현상을 그리거나 조각화 하는 등의 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조형물이나 무덤을 장식한 묘비를 세웠는데 그 안에 천사, 짐승, 새, 사람 등의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하곤 하였다.

바)제2 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청교도들은 제2계명이 형상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금지 사항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보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의 수단이 성화나 새긴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라고 믿고, 이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Cotton).

보스톤교회의 목사였던 존 코튼(Cotton)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말씀과 성례만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도이다. 그 위에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은 주께 대적하며 손상을 끼치는 행위이다. 시각적인 면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성례에 의하여 충분히 시행되고 있다.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일꾼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지 않고 설교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므로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을 고안하거나 만들어서 인간의

감각적 기관을 매료시키는 것은 성경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하며 그런 것을 사용하도록 가르치거나 명령하는 자와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자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어떤 직명이나 법규, 또는 제도에 근거하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제2계명에 따른 온전한 예배 주장
청교도들은 제2계명의 가르침을 따라 오직 성경에 명시된 대로 예배할 것을 주장하였다. 코튼은 "성경은 내적이거나 외적이며 도덕적이거나 의식적인 모든 예배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충족한 법칙이다. 이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입증되고, 모든 기독교 목사들의 일반적 신앙고백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성경에 따라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드리는 것이므로, 인간이 만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인위적인 모든 의식을 배척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주장하였다. 의식은 신약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younsuklee@hot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충은나부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관계를 맺는 대화

몇 해 전 어느 방송국에서 행복한 대화법 특강을 마친 후의 일입니다. 전국에서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가정에서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호소했습니다.

대구에 산다는 한 어머니는 사춘기 딸이와 겪고 있는 갈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딸이를 잉태할 즈음 심한 시집살이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iman 아니면 당장이라도 이 결혼을 청산하고픈 마음이 굴뚝같은 시절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첫딸을 출산했을 때 이 아이의 모습에서 시누이의 모습이 보이는 것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본인을 힘들게 했던 시누이의 모습을 자신의 딸이에게서 날마다 보고 산다는 것이 너무 괴로운 일이라서 아이는 눈을 맞추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 아이를 모질게 다루고 힘들어 했는데 아이가 사춘기가 된 요즘에는 딸이 엄마와 눈을 마주치려 들지도 않고 말도 안하고 피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나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눈을 흘기며 자신을 원수같이 대하는 딸이와 어떻게 다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시도해볼 수 있는지를 고민하던 중 제 특강을 듣고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불행한 병에 걸려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화가 안되면 관계가 두절되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결국은 이별이 따라옵니다. 깨어진 관계의 특징은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대화가 바로 성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품이란 그 사람의 생각, 마음, 행동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어 상황에 맞는 느낌을 표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더 좋은 태도들을 배우게 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대화를 잘하는 부모는 대화함으로써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행복한 관계를 맺어보는 그 경험들이 모여 자녀의 좋은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품 좋은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행복했습니다. 좋았던 추억들이 많았으며 좋은 대화로 서로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서로의대화가 막혀 있었습니다. 어른으로 성장한 후에도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 맺는데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성품을 자라게 하는 비결은 자녀에게 더 좋은 생각을 갖게 하고 더 좋은 감정으로 유지하면서 감정을 조절하게 하고 더 좋은 말과 행동들로 전환하며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는 성품을 가르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들려주는 모든 대화가 자녀의 성품이 되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가정 주변의 모든 말들을 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이 되어 자녀에게 좋은 성품의 씨앗이 되어 자랄 수 있는 대화로 모든 관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금요일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성령찬양: 오전 10:00(화,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b.org	뉴욕새비성장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민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 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도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일(시)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Fax: (718)938-1777 45-8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tch.com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티모티예배: 오후 1:30 화요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일(시)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cchurch.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 오전 5:40(화-금) 금요일예배: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턴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신앙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973)78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전 6:0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c.us/	에시랑교회 담임목사: 손환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킨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시)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pc.org	킨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c.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모임예배: 오전 11:00 주일제사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금, 토, 일, 공동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회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주일4부예배: 오후 9:00 (1, 2, 3, 푸스타네쉬 설교) Tel: (595)211-574-985 E-mail: hanjrk@hot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9:3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시)예배: 오후 8: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목회서신

찬양선교(PRAISE MISSION)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찬양을 하면 마음문이 열리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능력의 문, 영안의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찬양은 예배의 시작이며, 첫걸음입니다. 찬양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여도 능력도 받지 못하고 영안도 열리지 않습니다.

만, 기도는 올라갔다 응답으로 내려오고, 헌금은 올라갔다 물질의 축복으로 내려오므로 3요소는 모두 내려온 것이지만,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호흡이 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찬양을 해야 하고(시150:6),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천군천사와 함께 영원토록 해야 할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찬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성 가스펠곡이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40세미만은 찬송가 곡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열린예배(Open Worship)의 영향으로 찬양대가 없어지고, 보컬찬양팀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New Age)의 영향으로 록(Rock), 재즈(Jazz), 랩(Rap) 타입의 사탄음악(Satan Music)이 교회에 침투되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찬양사역자들에 의하면, 지금 불려지고 있는 가스펠곡의 약 85%가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혼적인 사랑을 주제로 한 Love

Song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영적인 경배와 예배찬양곡(Worship Song)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위기입니다. 세상음악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여 기쁘게도 하고 울리기도 하지만,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K-Pop의 한류바람이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세상음악을 하기 위해서도 저들은 작곡, 편곡, 안무, 의상, 화장, 성형, 현지 언어, 음향, 철저한 연습 등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대박을 터뜨리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예배를 위한 찬양은 어떠한가? 연습부족, 지각출석, 조직적인 후원부족 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하는 인간도 기쁘게 할 수 없고, 찬양사역자들과 찬양팀들은 열악한 경제적 환경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대상 6장, 23장, 25장을 보면, 다윗 왕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에 모셔온 직후에, 4천명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최대의 메머드 찬양단을 창단했는데, 아삼과 헤만과 여두둔을 찬양대장으로 삼고, 찬양대를 24반차로 나누고, 각 반차마다 12명의 찬양사역자들을 세워, 찬양대를 가르치게 했는데, 3명의 찬양대장과 288명의 찬양사역자를 포함한 4천명의 찬양대가 모두 레위지파였습니다. 레위지파는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로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은 지파로서 기업이 없고, 다른 11지파에서 번성할 정도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지파는 성직자 지파이며, 찬양사역자들도 성직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찬양을 통한 영혼구원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또 다른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선교라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루시엘 천사장이 타

락하여 루시퍼, 사탄이 되었으므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영적 전쟁이라면, 찬양도 영적 전쟁이고, 선교가 복음을 통한 영혼구원이라면, 찬양으로 마음 문을 열려야 말씀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 받게 되므로, 찬양도 선교라고 할 수 있고, 찬양사역자들도 찬양선교사(Praise Missionary)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찬양이 살아야 예배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은혜도 받고, 능력도, 위로도, 평강도, 기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이 살려면, 찬양사역자들이 먼저 레위지파의 성직자, '찬양선교사'란 자각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찬양을 은사로 보고 찬양사역자들에게 무보수 봉사를 강요하지 말고, 선교적 차원에서 찬양사역자들이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 주최 제 2회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12월 2일 오전 11시 미주복음방송

우수상: 송정훈 집사, 장려상:김태길, 안정희, 오경환, 최Sunny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이하 세기연)가 주최한 제 2회 독후감 공모전에서 △우수상: 송정훈 집사(뿌리깊은 영성/LA 나침반교회) △ 장려상: 김태길 성도(직설/뉴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안정희 집사(하나님의 침묵/가디나성화장로교회), 오경환 목사(직설/라스 영락교회), 최씨니 집사(나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수상하게 됐다. 세기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제 2회 독후감공모전을 실시했으며 지난 10월 1일 마감했다. 금번 독후감 공모전에는 가주에서 참여한 12편을 비롯해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텍사스, 필라델피아 등에서도 참여해 총 23편의 글이 접수됐으며 전인철 목사(생명의말씀사 대표)와 백승철 목사(에피포도에술인협회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사진은 지난해 제 1회 독후감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 올 시상식은 12월 2일에 갖는다.

지난 7일 11시 로텍스 호텔에서 언론협 임원들과 함께 자리한 심사위원들은 "지난해에 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감사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눈에 띄는 우수작을 찾기가 어려웠다"며 "독후감을 쓰는 요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 독후감은 책의 내용을 요점 정리하는 것이 아니며 설교문이나 간증문 형식도 아닌데 접수된 상당수의 독후감이 독후감 형식에 맞지 않는 글이 많았고 주제 축에서 요구하는 분량이 지키지 않은 분도 있었다"고 심사소감을 말했다.

또한 "지난해 이미 수상한 분의 작품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제외된 점도 양해해 달라"고 말하며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자를 선발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했다. 제 2회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은 오는 12월 2일(금) 오전 11시 미주복음방송에서 진행되며 수상자들에게는 축하패와 함께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이날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 총회도 있게 된다. 자세한 것은 lachpress@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동부개혁장신 30회 장학기금 위한 찬양축제를 마치고 교수, 재학생, 동문들이 기념촬영 했다.

동부개혁장신 30회 장학기금 위한 찬양축제

9일 뉴욕셋세마네교회, 16일 퀸즈장로교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학감 이규본 목사)가 지난 2일 저녁 8시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찬양축제를 뉴욕새사람교회(담임 이종원 목사)에서 열었다. 학장 장영춘 목사는 축도 후 찬양과 간증을 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특히 교단내 타 신학교는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는 개혁신앙 교육과 철저한 학사관리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 1부 예배는 이종원 목사(총무처

장)사회로, 기도 순한권 목사(전 총동문회장), 성경복독 김미권 학우(목회학석사과정), 찬양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합창단(지휘 윤원상 교수), 말씀 이규본 목사(학감)의 순서로 진행됐다. 1회 졸업생에서 학감이 된 이규본 목사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시146:1-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며 "영혼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첫째,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고 둘째, 영적 헌신을 뜻하는 것으로 고난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초월해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나 함께하심을 깨닫고 헌신하는 찬양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2부 찬양의 순서는 독창 최정환 학우, 합창 신학교합창단, 간증 허장길 학우(목회학석사과정), 독창 이재환 학우(목회학석사과정), 헌금 및 찬송, 봉헌기도 정기대 목사(총동문회장), 합창 신학교합창단, 재학생과 동문을 위한 기도 이종태 목사(총동문회 부회장), 축도 장영춘 목사(학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는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교단신학교로 1987년 설립돼 44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교 설립 때부터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해왔으며 올해로 30회를 맞았다. 매년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찬양축제는 9일에는 뉴욕셋세마네교회(담임 이지영 목사), 16일에는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이어진다. (정리: 유원정 기자)



무지개가족선교회 선교원 증축완공감사예배에서 이지혜 선교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편모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

무지개가족선교회 선교원 증축완공감사예배

무지개가족선교회(대표 이지혜 선교사) 선교원 증축완공 감사예배가 5일 오전 11시에 거행됐다. 이날 이지혜 선교사는 "14년간

사역하면서 장소가 좁아 편모들이 있을 수 없어 이곳에 들어와야 하는 편모들의 웨이팅리스트가 많았다"며 "하지만 선교원이 증축이 되어

방이 많아져 편모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게 됐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저희를 후원해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지개 가족선교회는 삶에서 부딪히는 일로 인한 문제들(자신 혹은 배우자의 도박, 마약과 알코올중독, 가정폭력으로 고전하고 있는 여성들과 임신부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이날 예배는 김창근 목사(토렌스 선한목자교회)가 찬양인도로 시작, 이지혜 선교사가 인사말을, 영감 가주하원의원이 격려의 말씀 전했다. 그리고 김현수 목사(토렌스선한목자교회 담임)가 요 12:1-3을 설교했으며 김정찬 목사(갈보리장로교회 담임)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장신대 후원의 밤

"선교적 사명감 갖고 사역자 양성"

미주장신대학교 제5회 후원의 밤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제5회 후원의 밤이 7일 오후 6시 30분 본교 채플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이상명 총장은 "올해로 개교 39주년을 맞이했다. 학교를 세우고 함께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다. 함께 참석해준 분들께 감사드리다"고 언급하며 "훈탄한

시대 속에 가장 필요한 귀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강물이 구비쳐 바다로 가듯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담담하게 갈 것이다. 귀한 만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충기 학생처장 사회로 열린 후원의 밤은 유영기 목사(KPCA 총회장)가 축사를 박성규 목사(이사장)

가 개최기도 했다. 유영기 목사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통계적으로 60%가 복음을 모른다. 70억 인구 중 42억 명이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 복음전하는 귀한 일을 위해 장신이 헌신하고 있다. 미국현지가 선교지다. 미주장신은 장신 직영신학교로 선교적 사명감을 갖고 주의 종을 키우고 있다. 지속적으로 학교를 위해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교 동문 박지범 목사와 재학생 조수연 사모 부부가 듀엣으로 특송 했다. 학교 소개 동영상, 본교재학생 한아영(M.Div)과 김요셉(B.A)의 후원 요청 메시지를 전했다며, 구경모 교수(교무처장)가 학교현황 소개한 후 분교중창단(지휘 조혜정 교수)의 특별찬송이 있었다. 이날 이상명 총장이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참석한 모든 이들이 찬양하며 마쳤다. (박준호 기자)

(2면에서 계속) 동 보고서에 제시된 사이드 쿠아치의 사례를 보자. 지난해 1월 프랑스의 풍자 주간지 샤프리 엠티의 사무실에서 총기를 난사해 직원 10명과 경찰 2명을 사살한 범인 중 한 명이다. 쿠아치는 짝퉁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하는 지하 조직을 운영해 그 수익금으로 총기를 구입했다. 프랑스 세관은 샤프리 엠티 테러가 발생하기 2년 전 그의 짝퉁 조직을 적발했지만 프랑스 정보기관의 지원 거부로 그의 음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만큼 공조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유럽연합(EU) 범접행 기구인 유로

폴의 로빈 웨인라이트 국장은 뉴스 위크와 가진 인터뷰에서 급진주의자와 전과자의 상관관계를 찾기 위해 교차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밝혔다. "IS가 제기하는 국제 테러리즘의 형태를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IS 테러리스트와 범죄 활동의 연결이 이전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큰 문제다. 그들 중 다수가 전과자다. 잡범이었더라도 그들 대다수는 어떤 식으로든 범죄와 관련이 있었다. 각국의 수사관들이 놓칠 수 있는 그런 관련성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공조는 유럽 각국 사

이나 EU 차원에서 생각만큼 잘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협력이 이뤄진다면 지난해 1월 파리 테러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났던 바타클랑 공연장 공격이나 지난 3월 벨기에 브뤼셀의 말비크 전철역 테러 같은 것을 사전에 막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노이만 소장은 "경찰과 대테러 전담 기관의 사고방식이 달라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테러와 범죄를 별개로 본다. 하지만 지금 교도소 내의 급진화를 보면 그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된 문제로 파악해야 마땅하다."



부천시립합창단 초청 연주회가 동양선교회에서 열렸다

남가주총청향우회, 부천시립합창단 초청연주회

남가주총청향우회(회장 이현호) 주관 부천시립합창단(지휘 조익현)

초청 연주회가 5일 오후 6시 동양선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열렸다. 연주회는 부천시립합창단이 미국의 합창곡 △한국민요, 가곡 △오페라 △성가 △한국의 대중가요 등 다섯 스타이저로 나눠 진행됐다. 그리고 한이름합창단(지휘 이경호 목사)와 경기민요 공연단이 찬조 출연해 연주회를 빛냈다. 이날 연주회는 엄규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의 개회기도로 시작, 국가제장, 박영우(베이커스필드 시 자매도시 위원회)와 이현호 총청향우회 회장, 그리고 김만수 부천시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2016년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주최하는 '2016년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이 11월 27일(주) 오후 6시 뉴욕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646)270-9771

글로벌커네티컷한인여성목회 창립예배

전도와치유교회(담임 조상숙 목사) 성전이전 감사예배 및 글로벌커네티컷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창립예배가 11월 17일(주) 오전 11시 본교회당(81 Clintonville Rd, North Haven, CT)에서 열린다.

▲문의: (860)830-6808

이인옥 사모 추모예배

뉴욕어린양교회 원로 김수태 목사의 부인 이인옥 사모(사진)가 지난달 29일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뉴욕어린양교회(담임 박운선 목사) 지난 6일 추모예배를 드렸다. 고 이인옥 사모는 1947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28세에 김수태 목사와 결혼하고 캐나다로 이민 갔다가, 1985년 뉴욕에 와서 1990년 어린양교회를 개척하고 26년간 목회를 도왔다. 2015년 11월 은퇴하고 한국에서 생활했다. 김수태 목사와의 사이에 두 딸이 있다. 김수태 목사는 추모 동영상 통해 평생의 동역자인 아내에게 다시 한 번 사랑을 고백했으며, 수고를 치하했으며, 곧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뉴저지성도교회 설립20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를 마치고 임직자들과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충성스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뉴저지성도교회 설립20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뉴저지성도교회(담임 허상회 목사)가 교회설립 20주년을 맞아 11월 5일 오후 5시 기념예배 및 임직식을 가졌다.

성도교회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장 고택원 목사)가 든노회(노회장 조성훈 목사) 목회자들이 순서자로 참가한 예식에서 허상회 목사는 20년간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허상회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1부 예배는 박형기 목사 기도, 박해창 목사 성경봉독, 시온찬양대 찬양 후 조성훈 목사가 "너희로 행하게 하려하여"(요13:1-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 목사는 "부두도 코드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비슷한 취미,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코드를 맞추는 것"이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일꾼을 세우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알려주려고 세우신 것"이라고 말했다.

다. 이어 이종식 목사의 헌금기도 후 임직식이 거행됐다.

이준성 목사의 임직기도 후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서약과 안수기도, 악수례, 공포로 이어졌다.

허상회 목사는 "임직자들이 충성스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이라며, "양무리를 돌보고 섬김의 덕을 세우도록,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도록, 날마다 십자가의 피흘리는 고백을 담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덕을, 사회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했다.

권면은 이원호 목사와 김재호 목사가 했으며, 문종은 목사가 축사한 후 임직패를 증정했다. 축가는 이철재 집사, 답사 이인재 장로, 축도 윤성태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식사기도는 김영열 목사가 맡았다.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장로장립: 이인재, 진운용 ▲집사안수 이승민 ▲권사임직 이미정, 박미화, 황영숙, 최혜실. (정리: 유원정 기자)

언더우드 서거100주년 기념예배 및 선교찬양제

11월 13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서 준비모임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 예배 및 선교찬양제가 11월 13일(주) 오후 5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이를 위한 준비모임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렸다.



언더우드 선교찬양제 뉴욕 준비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은 10월 28일 정오 금강산 식당, 뉴저지 지역은 11월 3일 오전 11시 뉴저지벤엘교회(담임 정성만 목사)에서 각각 개최됐다. 주최 측은 "언더우드의 '예수 중심' 선교정신을 되새기고 초교파적 찬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체험하는 뜻 깊은 찬양제가 되도록 기도하고 성원해주기를" 부탁했다.

이런 찬양제를 통해 모아지는 성금은 연세대학교가 언더우드의 선교 정신에 따라 2015년 인천 송도에 초교파적으로 설립한 G.I.T(지구촌신학훈련원)에서 2년간 무료로 교육 받는 '선교현지 지도자육성 장학금'으로 쓰여진다. (기사제공: 언더우드 준비위원회)

'새롭게 거듭나는 개혁의 해'

뉴욕교협 제42회 총회 난항 예상했으나 무사히 마쳐

김홍석 목사를 회장으로 하는 뉴욕교협 제 43회기가 임원단을 발표하고 출범했다.

지난 8일 뉴욕교협이 발표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홍석 목사(뉴욕늘기쁜교회) ▲부회장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평신도부회장 이상호 집사(뉴욕성결교회) ▲총무 임병남 목사(뉴욕평화교회) ▲서기 최현준 목사(로델교회) ▲회계 이광모 장로(뉴욕동부교회) ▲부회계 장현숙 목사(뉴욕열린교회) ▲수석협동총무 양만석 목사(뉴욕그레이트네교회).

김홍석 목사는 43회기를 시작하

면서 교협이 나갈 방향과 사업내용을 소개하면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의 뜻 깊은 해에 임기를 맡아 교협이 과거 그릇된 관행이나 잘못을 바로 잡고 추락한 위상을 회복해 교협이 교계와 이민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중심단체가 되도록 금번 회기를 개혁적 신앙의 토대위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개혁의 해'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예수께로 돌아가서 계시는가,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는가를 항상 되새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말

로만 하는 개혁이 아니고 획을 긋는 43회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협이 밝힌 중점사업은 첫째, 운영방향의 전환으로 일부 교회와 임실행위원 위주 운영에서 탈피해 자치회를 구성하고 3개 지구 하에 14개 지역으로 나눠 운영하며, 지역별 활동으로 △지역별 정기모임 △지역연합집회 △지역대항 연합체육대회 △지역대항 경연대회 △기타 참여와 연합을 위한 행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둘째, 제도 개선으로 △선거제도의 개선 △재정관리와 회계 감사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 △헌법과 세칙들의 비합리적 규정과 오류 수정 방안을 발표했다. 법 제정은 임실행위와 임시총회를 통해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의식의 변화로 △목회자의 윤리교육 △협회원으로서의 연대 의식 △복음적 신앙의식을 위해 세미나나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43회기 뉴욕교협은 10개 특별위원회와 16개 분과위원회 외에 자치회에 역점을 두고 지역별 활성화를 통해 전체 교협을 운영해나갈 것을 밝혔다. 또 페이퍼교회들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뉴욕교협 43회기 이취임식은 29일(화) 오전 11시 개최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제 45기 정부회장 후보등록 공고

서류마감 11월 8일 오후 5시... 직접 제출해야

뉴욕한인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11월말 총회를 앞두고 지난 28일 제45기 회장, 부회장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했다.

입후보 자격은 ▷목사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된 자 ▷대뉴욕지구 내에서 담임목사 경력 5년 이상된 자 ▷본 목사회에서 임원 혹은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법정 금고형 이상, 재판에 계류 중)가 없는 자로 구비서류는 ▷후보등록원서 1통(소정양식) ▷소속교단 추천서 1통(독립교단 회원은 증경회장단 3인 이상 추천서로 대체) ▷목사회원 추천서 1통(5명 이상)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 1통(독립교단 제외) ▷이력서 1통(사진부착) ▷입후보 소견서 1통 ▷목사안수 증명서 1통(해당교단서식) @등록비 1,500달러를 내야 한다.

등록접수 기간은 11월 8일(화) 오후 5시까지 선관위에게 직접 제출해야한다.

자세한 문은의 총무 허윤준 목사(718-637-1470) 서기 장현숙 목사(646-789-3477)에게 하면 된다.

이번 뉴욕목사회 특별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임병남 목사(718-637-1470) 서기 장현숙 목사, 박정오 목사, 김경열 목사(718-637-1470)로 구성됐다.

한편 총회는 11월 28일(월) 오전 10시 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열린다.

목사회는 본 회의 회원이라도 회칙에 따라 최근 3년간(2013-2015) 무단결석한 회원은 이번 총회에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43회기 임원단. 왼쪽부터 최현준 목사, 이광모 장로, 이만호 목사, 김홍석 목사, 이상호 집사, 임병남 목사, 장현숙 목사.



한기부 뉴욕지부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신임 이만호 목사 "뉴욕에 성령의 불붙이겠다"

한기부 뉴욕지부 대표회장 이취임식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이하 한기부) 뉴욕지부가 신임회장 이만호 목사를 위시해 제 6대 조직을 발표하고 지난 2일 뉴욕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회장에 취임한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는 "한기부 뉴욕지부 회장으로서 회개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작은 목자로 뉴욕교계와 동포사회에 성령의 불을 붙이겠다"며 "화합과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임하는 송병기 목사는 "지난 1년 동안 △조국통일과 △미국의 영적각성 △세계 선교를 위해 매월 기도회를 개최했다"며 협력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이취임 예배는 총무 김희복 목사 사회로 이재덕 목사의 기도예 이어 송일현 목사가 인사말을 했으며, 양명환 목사(한기부 대표회장)가 설교했다.

송일현 목사(한기부 이사장)는 "10년전 '성령의 불을 세계로' 기치 아래 8년전 미주지역에 한기부 지부를 세우게 됐다"며 "오늘 6대 회장 취임식이 감격스럽다. 이번 회기가 한기부 새로운 원년이 되는 해가 되길 바라며 기도의 강한 불이,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양명환 목사는 "성령으로"(행 1: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오늘

날 교회의 문제는 성령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열심히 복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목사의 가슴에 먼저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복을 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송병기 목사의 이임사 및 환영사, 이만호 목사의 취임사가 있은 후 최영식 한기부 증경회장, 장석진 세기총 증경회장, 안창의 뉴욕교협증경회장 대표, 황동익 초대 미주본부장이 축사하고 황경일 1대 증경회장이 격려사를 전했다.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시간에는 뉴욕지부에서 한국 한기부 일행들에게, 한국 한기부가 송병기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취임 통성기도 시간에는 정여균 목사(조국과 민족의 안정을 위해), 이길윤 목사(조국통일을 위해), 정순원 목사(미국의 대선과 동포사회를 위해), 김영환 목사(뉴욕교계와 뉴욕 한기부를 위해)가 각각 인도를 했다.

서기 김진화 목사의 광고 후 박희소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만찬기도는 신현택 목사가 맡았다.

(유원정 기자)



'신학과 과학'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의학적으로 본 진화론의 오류" 주제

제3회 '신학과 과학' 세미나, 강사 윤세웅 박사

뉴욕지역 한인신학교협의회(회장 윤세웅 목사)와 웨이스신학교가 공동 주최한 제 3회 '신학과 과학' 세미나가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강사 윤세웅 박사는 "의학적으로 본 진화론의 오류"라는 주제로 "왜 진화론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가?"에 대해 '신학자와 과학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엄격히 유전학적, 법의학적으로 증명했다.

오찬 후 오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세미나는 박태규 목사(총무) 사

회로 기도 정익수 목사, 세미나 취지 설명 한문수 목사, 강사소개에 이어 윤세웅 목사가 강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영훈 목사 축도로 마쳤다.

윤세웅 목사는 비교과 전문의로 현재 현재 신학교협의회 회장, 웨이스신학교 총장,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 겸 이사장으로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신학생들은 리포트를 작성해 제출하면 3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유원정 기자)

시한부 선고 받은 우병만 목사

뉴욕청소년센터에 1만 달러 기부

교회일보 발행인 우병만 목사가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에 1만 달러를 기부했다. 우 목사는 최근 암이 재발돼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지난 2일 오후 6시, 뉴욕수정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우병만 목사는 "사역의 모습은 달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대명제를 언급하고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전하며, 뉴욕의 한인교회들이 청소년 사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우 목사는 "죽더라도 뉴욕교계를 위해 노력했다는 발자취를 남기고 싶었다"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병만 목사는 11월 8일 한국

으로 돌아갔다. 전달식이 있은 후 뉴욕교협 회장 김홍석 목사가 기도했으며, 청소년센터 이상호 이사장도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청소년센터 대표 황영송 목사는 "한인교회 안에서 영여권 사역을 하고 있는 2세들의 미래가 더 밝게 명하다"며 "그들에게 건강한 이민 교회 미래상과 좋은 지도자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컨퍼런스를 위해 이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병만 목사는 지난 6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노던 150가 한양마트 앞에서 연례적으로 전개해 온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 1천 포대의 쌀을 기증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왼쪽부터 청소년센터 대표 황영송 목사, 이사장 이상호 집사, 교협회장 김홍석 목사, 교회일보 사장 우병만 목사.

감사절...찬양으로 이민사회에 새 활력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주최 코랄페스티벌 성황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회장 오성에 권사) 주최 코랄페스티벌이 6일 오후 6시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오성에 권사는 “한 해 동안 넉넉하고 풍성하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아름다운 찬양과 합창의 하모니로 이민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코랄페스

티발을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출연하는 모든 팀들 한분 한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이들을 본 협회 총무의 사회와 신동철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코랄페스티벌은 △동부사랑의교회(지휘 김정대) △새생명오아시스교회(지휘 이준실) △CTS 아이드림 콰이어

(지휘 강민석) △나성한인교회 호산나성가대(지휘 김경태) △글로벌선교교회(지휘 강민석) △밸리한인여성매스터코랄(지휘 장진영) △윌셔연합감리교회(지휘 장상근) △스케노시스 챔버 콰이어(지휘 엘리엇

박) △한국가곡협창단(지휘 조명철) △남가주사랑의교회(지휘 조성환)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으며 연합찬양으로 헌법의 메시야 중 할렐루야를 조성환 목사의 지휘에 맞춰 불렀다.

이날 페스티벌은 김일형 목사(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주최 코랄페스티벌에서 이날 모인 전참가자들이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홍순관 집사 초청 찬양집회가 충현선교교회 등 3교회에서 열렸다

찬양가수 홍순관 집사 초청 찬양집회 충현선교교회, 대흥장로교회, 용기장이교회에서

찬양가수 홍순관 집사 초청 찬양집회가 남가주 3개 교회에서 열렸다.

지난 2일 저녁 7시30분에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에서 열린 찬양집회에서 홍순관 집사는 “지구는 낯선 땅이다. 이 낯선 땅을 고향으로 만들 것인 낯선 땅으로 만들 것 인지가 숙제다. 이웃이 넘어지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교회가 고향처럼, 성도들이 엄마처럼 받아줬으면 좋겠다. 교회는 존재자체로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이곳이 하나님나라이며 고향나라로 일구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내 몫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신자들과 의무”라 말하며 “지구는 하나다.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나서 방사능유출

이 됐을 때,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에 대해, 그리고 아마존의 밀림이 없어지는데 왜 세계가 긴장하는 이유와 같다. 그것은 다 따로 다르기 아닌 우리 몫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홍 집사는 ‘평화는 아침에 피어나는 꽃처럼 오리니’,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살할들의 무게’, ‘물 한그릇을 주시기 위해’, ‘남에도 북에도 아침이 함께 오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등을 불렀다.

한편 홍순관 집사는 4일 오후 7시30분 대흥장로교회(담임 권영국 목사), 6일 오후 2시30분 용기장이교회(담임 김시은 목사)에서 찬양집회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뉴홀한인교회 창립 8주년 기념감사예배에서 송인철 담임목사가 축도하고 있다

그의 몸 된 교회로 사역...

뉴홀한인교회 설립 8주년 기념 감사예배

뉴홀한인교회(담임 송인철 목사) 설립 8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6일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송인철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에서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골1:24-2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송인철 목사는 “바울은 교회를 예수그리스도로 비유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그리스도이며 그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는 교회다.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없듯 예수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예수 없는 우리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예수와 별개로 교회가 다니면 많은 갈등 속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바울은 몸 된 교회를 위해 일을 한다고 했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며 예수와 교회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예배에는 성찬식을 함께 거행했으며 예배가 마친 후 애찬을 함께 하며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뉴홀한인교회는 나사렛성결교단에 속해있으며 지난 2008년 9월7일 한인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됐다.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의 모토를 갖고 있으며 뉴홀한인교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문의:(661)219-5758

〈박준호 기자〉

기독교세계관으로 리더 양성한다

충현선교교회 다윗리더십연구소, 세계관 컨퍼런스 개최

충현선교교회 부설 다윗리더십연구소(디오스) 주최 세계관 컨퍼런스가 5일 오전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본 교회에서 개최됐다.

컨퍼런스는 민중기 목사(본교회 담임,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가 ‘성경과 공적신앙’, 안병호 선교사(미주원주민 선교사)가 ‘교회에서의 한인사회, 김스텔라(YNOT커뮤니티 대표)가 ‘여성에 대한 폭력’, 세년나이(Justice Speaks 대표)가 ‘지역사회와 인신매매’, 그리고 안현미(한인가정상담소 상담사)가 ‘LGBTQ를 아십니까?’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또한 이날 갓스이미지가 공연했다.

디오스는 2015년 7월 29일 비영리단체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킬 기독교 리더들을 양성해야 할 위기의식을 가지고 설립됐다.

디오스는 △기독교리더십,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교육 △교육 컨퍼런스(세미나/심포지움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다섯 가지 목표를 두고 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부목사 청빙

플로리다 뉴라이프선교교회는 장년 교육 및 청년부 사역을 담당할 부목사(1명)를 청빙한다. 자격은 PCA(미국장로교) 교단에 가입됐거나 가입이 가능한 개혁주의(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따르는 분, 교회행사 행정 및 교육 등에 경험자로 스터럭(가족사진 포함) △자기소개서(사역계획 내용포함) △목사안수증명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최근설교 1편(CD 또는 홈페이지 링크) △추천서 2통을 11월 30일(수)까지 이메일(홍경하 목사 pastorkenny@gmail.com), 혹은 우편(15051 E. Iliff Ave, Aurora, CO 80014)로 보내면 된다.

▲문의: (303)337-9191

남가주장로성가단 제 23회 정기연주회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정진식/지휘 조성환) 제 23회 정기연주회가 12일(토) 오후 6시 남가주사랑의 교회에서 개최된다. 남가주장로성가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오렌지카운티 셀터사역 His House를 돕는다.

▲문의: (626)660-4284, (213)598-7596

은혜한인교회 특별새벽부흥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추수감사 특별새벽부흥회가 ‘최상의 감사는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는 주제 아래 14-19일까지 진행된다.

▲문의: (714)446-6200

반주자 모집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주일 2부 예배 반주자를 모집한다. 성가대 반주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이력서(사진첨부)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우편메일 사절. 제출마감 11월 30일.

▲문의: (310)325-4020, jscoffice01@gmail.com

‘명절 증후군 예방과 대처’ 세미나

LA 카운티정신건강국은 오는 2016년 11월17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종교지도자 및 관계자들을 위한 “Holiday Blues/명절증후군 예방과 대처” 세미나를 개최한다. 장소는 미주평안교회(170 Bimini Pl, LA)

▲문의: (213)738-3454, joollee@dmh.lacounty.gov

퀵북(QuickBooks) 강좌 안내

NPO(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및 교회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적 회계관리를 위한 퀵북(QuickBooks) 강좌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플러튼 은혜한인교회 캠퍼스 내 그레이스 도서관 GL2 강의실에서 개최한다. 강사 제임스구 교수. 본 강좌는 18일(금), 19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문의: (714)393-4595(Center), cmm@churchhomepage.org

GMU 추수감사 초청의 밤

그레이스미션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 추수감사 초청의 밤이 22일(화) 오후 7시 GMU예배실(은혜한인교회 미라클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학교 탐방과 학위인가 및 과정이 소개되고 정부 학자금 보조와 학생비자 등 학교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에게 특별 상품 증정과 기념품이 증정된다. 한편 GMU에서는 2017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714)525-0088



충현선교교회에서 세계관 컨퍼런스가 본교회부설 디오스 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인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영성) 주일 4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천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 Tel: (213)380-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명목(영성-금): 오전 5: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EM 찬양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절을 이 예배: 오전 1:20 영인예배(영소+KOC, 평일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등문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g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여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환 박스 경음),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대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인)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천년)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lc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영인예배: 오전 9:15, 11:30 주일학교: 오후 1:30(수요일-토)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인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2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버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토요일학교: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로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천년) 주일 4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생령대령부: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lic.org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현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1:45 목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 www.socalmissiun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per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stv.com / e-mail: pastor@lacom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한)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천년) 장영우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g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한교연-한기총 통합 잔걸음

“늦어도 이달내 통합선언문”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연합선언문 발표 일정과 새 연합기관 명칭 등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7개 교단을 대표하는 (가칭)한국교회연합추진위원회(연합추진위·위원장 이종승 대신 총회장)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코리아나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연합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웠다. 연합추진위

는 실무를 담당할 인원을 9명으로 확대하고 현재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소속 직원은 그대로 승계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앞으로 연합추진위는 규칙과 조직, 가입심의 등에 관한 모든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을 맡는다.

당초 연합추진위원회는 한교연 3명, 한기총 2명, 두 기관에 가입하지 않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기

독교대한감리회에서 각각 1명씩을 선정해 파송키로 했었다.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교단의 대표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교계 안팎의 여론을 수용해 2명을 추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김선규 총회장과 김창수 총무·신평성 공보실장, 예장통합 채영남 직전 총회장과 변창배 기획국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여성삼 총회장과 김진호 총무, 기독교대

용어를 써가며 부도덕한 성행위를 인권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성적지향이 자신이 성적으로 끌리는 상대가 근친은 물론 복수의 성도 포함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온 성적지향을 인정해주면 여러명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행위인 중혼까지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

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최성규 전 총회장과 엄진용 총무, 예장대신 이종승 총회장과 이경옥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최성규 전 총회장은 “통합안은 2011년 7월 7일 일부 개정된 한기총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 규정을 참고하면 된다”면서 “사실상 한국교회 연합은 5년 전 7월 7일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승 위원장은 “앞으로 9인위원회를 중심으로 새 정관과 세부적인 일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늦어도 이달 말에는 통합선언문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 경험을 초월하는 도덕법칙이 존재하며 이러한 도덕법칙에 따른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존재한다”면서 “동성애는 이런 도덕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지 변호사는 “한국교회는 ‘거짓 인권’인 동성애의 실체를 똑바로 알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성애 옹호·조장 단체 법인설립 불허해야”

지영준 변호사,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토론회서 제기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연합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이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봤다.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의 저자인 정소영 미국변호사의 발표 후 토론에 나선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헌법 36조 1항에 나와 있듯 대한민국은 1남1녀의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자유권, 평등권을 앞세워 이 기준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동성애자들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성적지향이라는

“동성애 옹호·조장 단체 법인설립 불허해야”

차학연 27개 학부모 단체 강력 촉구

차세대바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과 27개 학부모 단체는 4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무부 법인설립불허 처분’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성애자들은 법무부가 동성애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 허가를 불허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법무

부는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이 단체는 법무부의 소관인 인권옹호단체의 범주에 속한다”며 동성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지연 차학연 대표는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향상한다는 미명 아래 비온뒤무지개재단을 법인화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재판부 판결에 따라 법인설립이 허가되면 부도덕한 성행위인 동성 간 성 접촉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꼴

이 된다. 대한민국 학부모 중 이걸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 것 같냐”고 성토했다.

김 대표는 “동성애자 단체가 법인이 되면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업에 정부 예산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끌어들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특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선량한 시민을 혐오세력으로 몰고 법인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법인이 설립되면 에이즈와 동성애의 상관성을 숨기고 동성애 문화 확산시키기 위해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서 “이렇게 되면 부도덕한 성

문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욱 강하게 밀려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학부모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성애자 단체가 법인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건적 폐해를 지적하고 법인 제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만약 서울고법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 학부모들과 건전한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 시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규탄대회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인원의 인류 진화설은 허구”

교진추, 7일 서울교육청 등에 교과서 개정 청원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회장 이광원)는 진화론의 증거로 알려진 ‘유인원(사진)’을 수록한 고등학교 과학 및 생명과학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7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유인원의 인류 진화설은 허구이

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서에는 전·현직 대학교수 79명 등 과학 관련 교육자 207명의 의견이 담겼다.

교진추는 “인류의 진화내용에 있어서 진화 계통수 상에 나타나야 할 공통조상으로 불리는

중간종 화석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류 진화 계열의 여러 호모속들이 같은 시기에 종속했다는 사실과 수백만년 이전 지층에서 현대인의 유골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간조상으로 불리는 것들의 두개골의 크기가 오히려 현대인의 것보다 크므로 해서 진화의 역전 현상이 발견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두개골이 한 계열의 것으로 조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교진추는 이밖에 돌연변이로는 새로운 유전정보를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과 목을 뛰어넘는 진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과 진화의 잔재인 쓰레기 유전자도 불려진 것들이 쓰레기 유전자 아니라 생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발견 등을 주된 청원 증거로 들었다.

교진추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도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보낼 예정이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 제27차 정기총회

대표회장 설동욱목사 연임, 상임회장 권경환목사 선출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대표회장 설동욱목사, 이하 한복총)는 7일 그랜드앰배서더호텔 도라지룸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열고 [사진] 대표회장에 설동욱 목사(예장교회 담임), 상임회장 권경환 목사(여의도순복음시흥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각 위원회별 조직으로는 교회일치위원장 안준배 목사, 인권위원장 김창곤 목사, 교회사위원회 박명수 목사, 국제위원장 정경양 목사,

교회부흥위원장 박병구 목사, 사회위원장 손광호 목사, 선교위원장 권경환 목사, 포럼위원장 남준희 목사, 다문화위원장 안종숙, 문화예술위원장 고세진 목사, 예배음악위원장 선경임 목사, 평화통일위원장 이호선 목사가 선임됐다. 미주지부에는 시카고지부장 유정환 목사, LA지부장 남철우 목사가 선임됐다.

제26대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는 예장교회를 1988년에 개척해 위임목사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부

흥과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부흥사로서 사역하고 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목회대학원에서 신학과 목회학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그리고 총신대학교 목회신학박사원 및 미국리

폼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수학했으며 동대학원에서 ‘목회사역의 동반자로서 사모의 역할’이란 논문으로 목회학박사학위(D.Min)을 받았다.

(기사제공: 한복총)



신천지, 최순실 사건 불뚱틸까봐 숨어

고위관계자 실토 “전국 12개 지파에 시위중단 지시”

신천지에수교증거장악성전(신천지)이 갑자기 주요 교회 앞 시위를 중단한 이유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때문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신천지 고위 관계자는 7일 “시국이 혼란스러운 데 우리까지 국가 혼란에 편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래서 신천지 총회에서는 전국 12개 지파에 공문을 내리고 집회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회를 잠시 중단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사이버 이단으로 불릴까봐 그런 게 절대 아니다”라며 “종교적으로 신천지와 권력관계를 연결짓지 말라. 최태민

최순실씨와 우리와 절대 상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신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신도 가운데 정치인, 검사, 판사 등이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새누리당 등 정치계에 신천지가 침투했다며 찾아내 쫓아내려고 하던데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국이 안정되면 다시 교회 앞 시위를 전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국이 안정되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지적할 것”이라며 “국정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는

데 당분간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서 ‘사이버 이단과 반사회적 종교집단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위를 잘못 했다간 못매를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집회를 중단했다’는 국민일보의 예상이 맞아 떨어졌다.

신현욱 신천지대체전국연합 대표는 “신천지는 최태민 최순실 사건의 불뚱이 자신들한테 툭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서 “결국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집회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신천지 미디어팀은 인터넷에서 ‘박근혜-신천지’ ‘사이버-신천지’라는 연관 검색어를 차단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만큼 인터넷 여론이 무섭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피상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해선 안된다”면서 “신천지를 공격하려면 복음방과 센터 앞 1인시위가 가장 확실하다. 1인 시위를 적극 벌여 더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천지는 2주 전까지만 해도 서울 명성교회, 삼일교회, 신촌성결교회, 수원 오목천감리교회, 대전 송촌장로교회 등지에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비방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때 “신천지를 이단이라 욕하는 담임목사 나오라”며 으름장을 놓고 “신천지가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면서 자랑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일제히 종적을 감췄다.

‘부패한 우리가 공의를 뒤엎어...’

예장합동 시국담화문 발표...교계 잇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교단과 연합단체들의 시국선언문과 시국기도회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은 7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관에서 발표한 총회장 명의의 시국 담화문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국민의 희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김 총회장은 “박 대통령이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때, 우렁당한 국격이 회복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최순실씨 일가와 권력층근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데 진력을 다하고 검찰의 사법권에 어떤 간섭도 불허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사이버종교의 책임자인 최태민씨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가 최씨 일가의 행적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피해를 입은 기독교계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회장은 “교회가 대통령의 통치력 상실과 비선실세들의 비리에 대해 빛과 소금으로 선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할 것” 교단 산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예장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은 오는 14일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에

서 노회, 산하 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국기도회를 연다. 이성희 총회장은 “사이버 영성과 관련된 사람이 국정의 주요부분에 관여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을 보며 신성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부탁한 사울의 시대가 떠올랐다”며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울은 결국 벌을 받았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단도 최근 간담회를 갖고 “국가적으로 심히 어렵고 교계도 어려운 때에 더 많이 각성하고 기도해야 한다”며 시국기도회 개최를 지지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총회장 권오윤 목사)도 오는 11일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총회 차원의 시국기도회를 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다음달 8일 대규모 시국기도회를 열 예정이며 그 전까지 각 지역에서 시국대회를 개최한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목정평)는 최근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야모스 6장 12절을 예로 들어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없고, 사슴이 소를 부려 바다에 갈 수 없어도 부패한 우리가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 1970년대 최태민 구국선교단 ‘접촉금지령’

권력 앞에서도 ‘원칙’ 지킨 증거 교단지 등 발굴

국내 주요교단들이 최순실씨의 부친 최태민씨가 1970년대 대한구국선교단을 설립했을 당시 ‘교류금지’ ‘가인자 처벌’ 등을 결의하며 일찌감치 선국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가 당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는데도 한국교회가 원칙을 지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1975년 3월 6일 당시 영애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으로 만난다. 그해 4월 29일 박 대통령의 후원을 받아 자신의 심복들을 중심으로 대한구국선교단을 설립했다. 5월에는 임진강에서 구국기도회를 갖고 박 대통령을 명예총재에 추대했다. 구국선교단은 최씨가 벌인 비리행각의 거점이었다. 이 단체는 추후 기독교사관을 설립하는데 여기에 강신명(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최훈(예장합동) 박강원(감리회) 목사 등 10개 교단 1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해 한국교회가 최씨에게 부여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예장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은 75년 6월 23일 최동진 당시 총회장 명의로 발표한 공고문에서 구국선교단을 불건전한 단체로 규정하고 참가나 협력을 금지했다.

이 공고문은 “근일 구국선교단 명의로 구국심자군이란 조직체를 가지며 목사들을 집총훈련으로 유인하는 단체가 있어서 교회를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산하 교회의 교직자나 성도는 이러한 불건전한 단체에 협력하거나 유혹되는 일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예장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도 75년 7월 총회 임원회를 열고 ‘통일교나 구국선교단 등 교단이 인정하지 않는 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금하며 그런 기관에서 발간하는 신문 및 잡지에 투고하는 일을 삼가도록 교단지인 기독교공보를 통해 공고한다’고 결의했다. 같은 해 12월 열린 임원회에서는 ‘구국선교단은 교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교단 산하 교직자와 교우는 이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로 결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 하라”

한교연 이어 아세아연합신학교 교수들 시국 성명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의 시국성명 발표에 이어 초교과 신학교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들도 4일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 하라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또 타락한 국가권력의 시너 높음에 앞장서온 정치권 목사들에 의해 조직된 여용 단체들은 해산할 것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듬해 열린 61회 정기총회에서 명확한 교류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예장통합 총대들은 ‘구국선교단은 교단과 관계없는 단체이므로 교단 목사는 이 단체에 가입하지 말고 가입한 자는 탈퇴하도록 노회에 지시해 주시길 할 것이며 총회지시를 순응치 않는 목사는 해당노회가 처벌하도록 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예장통합 68회 총회장이자 61회 총회에 총대로 참석했던 립인식(92·서울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는 8일 전화인터뷰에서 “당시 총회에 신 구국선교단에 동참하는 목회자들이 늘고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립 목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권력을 앞세워 목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총대들 사이에 구국선교단과의 교류를 금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교회장 전명구 목사)도 당시 전국 감리교회 교역자를 상대로 구국선교단의 활동에 가담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기감 기관지 ‘기독교세계’ 76년 10월호에는 현 감독교회장 같은 역할을 했던 김창희 감독과 중부·동부·남부연회 감독들 명의로 ‘전국 교역자에게 알림’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현재 기감은 전국에 10개 연회를 갖추고 있지만 당시에는 연회가 이들 3곳 뿐이었고 감독교장 호칭도 ‘감독’이었다.

이들은 “근간 교계에 물의가 되고 있는 구국선교단 및 통일교회의 초교과 운동 등은 우리 감리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기관”이라며 “이러한 단체 등에 일체 관여치 말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기감 출판국 관계자는 “교단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구국선교단 열린 임원회에서는 ‘구국선교단은 교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교단 산하 교직자와 교우는 이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로 결의했다.”

할 박근혜 대통령 하야, 국가권력을 사유화 하여 국가를 기망한 최순실에게 부여한 자들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 검찰은 국정농단의 모든 범죄 사실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 것, 타락한 국가권력의 시너 높음에 앞장서온 정치권 목사들에 의해 조직된 여용 단체들은 해산할 것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선교의 창 (65)



송종목 목사 (대학선교, Ph.D)

조국(祖國)에 대한 선교사들의 책무

2016년 들어 조국,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금년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진도 5.0이었다. 3일 뒤 12일에는 한국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1978년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였다. 우리 한민족의 터전인 조국 땅이 북과 남에서 연거푸 흔들린 것이다. 한데 요즘에는 땅보다 더 중요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한 여자가 통치권의 정점에서 국정농단을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강남 아줌마가 5천만 명의 안위가 달려있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들은 하도 어이없어 허탈해 하고 있다. 이에 11월 5일에는 광화문에서 20만 명이 모여 대통령하야를 외쳤다. 설상가상이라고 했는가? 요즘은 우리 경제도 심상치 않다. 세계 최고 브랜드를 자랑하는 삼성이 갤럭시 노트7의 250만대를 리콜하고 있다. 7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여러 가지로 낙마처럼 엷힌 국정이 걱정된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나라꼴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대한민국이 통째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국에 대한 선교사들의 책무는 무엇인가?

바울의 동족사랑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이 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배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유대 민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절박한 기도를 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9:3). 그는 이방인 구원을 위한 사도로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 동족으로부터 끊임없는 박해를 당했다. 그에게서 동족은 원수 같은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다.

모세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면에서 멸절될 수도 있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 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 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 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출32:32). 참 신앙은 이처럼 자기가 속한 민족 공동체나 국가에 대해 애정을 수반한다. 이렇게 쓰임 받았던 인물들은 수 없이 많다.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

사람인가?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민족을 사랑하며 국가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자이다. 아무리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조국을 등지고 소 닭 보듯 하면 진정 한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문제의 진단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미국을 보자.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는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낳았다. 이 사태는1929년의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계적 금융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그 시발점은 무엇이었나? 건국 가치인 신앙이다. 미국의 청교도적 신앙이 무너지니 퇴폐 문화가 범람했고 이런 윤리적 파탄은 탐욕스런 자들에 의해 경제파탄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바라보면 뿌리가 깊다.

누가 지금의 통치자를 뽑았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각료와 비서

가 있다. 더구나 우리 머리 위에 는 핵폭탄을 가진 북한이 있다. 북한은 우리 동족이지만 주최사상으로 문건 예측하기 힘든 집단이다. 따라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십은 탁월해야 한다. 순진한 유비보다 조조 같은 지도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하나 되어 힘을 합쳐야 버겁다. 한데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불의가 판을 쳐서야 되겠는가?

우리 인간은 시류에 편승해 쉽게 정죄하고 돌을 던지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절제해야 한다. 두 말하고 싶으면 한 말만 하고, 한 말하고 싶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 그 힘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해야 한다. 기도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다.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이 치열했을 때 보좌관들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찾았다. 그는 역수같이 내리는 비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부관들이 웬일이냐고 하니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독립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선교사가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 면에서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다.

조국(motherland)이 없으면 선교사도 힘을 쓸 수가 없다.

선교사는 타 문화권 사역 못지않게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야 한다.

선교사와 조국

조국(祖國)이란 무엇인가? 이는 인간이 태어나 자라는 나라를 의미한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조국이라는 말과 고국(故國)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한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모국(motherland)이라는 말을 선호한다. 하여튼 인간에게서 조국은 나 서 자란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곳이다. 따라서 조국은 어머니처럼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는 안식처로서 신비스런 힘을 지닌다. 만일 조국이 없었다면 나의 가정과 교회도 있을 수 없다. 이에 조국을 부정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자기 나라가 없는 인간은 불행하다. 집 없는 고아와 무엇이 다르랴! 조국이 없는 인간은 마치 길가의 조약돌처럼 빛을 잃고 나뭇굴개 된다. 지금 지중해를 떠도는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을 보라. 이런 점에서 선교사들에게도 조국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들은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 교회의 지원 속에 단체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들이다.

선교사의 주된 임무는 이방인 구원사역이다. 그렇다할지라도 선교사는 항상 조국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선교사에게 조국은 돌아갈 고향이요 기별 언덕이다. 프랑스 계몽주의 작가인 볼테르(Voltaire)의 말이 새롭다. “조국이란 인간의 마음이 묶여 있는 곳이다. 따라서 조국을 품고,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에 마음을 바치고, 결코 조국을 잊지 말아라”고 했다. 우리 선교사들에게 꼭 한 말처럼 들린다.

공동 운명체

이스라엘의 지혜서 ‘탈무드’에 보면 몸 하나에 머리가 둘 달린 뱀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한 마리일까? 두 마리일까? 가장 간단하게 식별하는 방법은 뜨거운 물을 양두사의 한쪽 머리에 퍼붓고 나서 반응을 보면 된다. 한 머리가 고통스러워하는데 다른 쪽은 태연한 자세로 있다면 두 마리의 뱀이다. 그러나 두 머리가 동시에 고통을 느낄 때 양두사는 한 마리라는 것이다. 이는 유대인임을 검증하는 한 이야기이다. 그들은 혈통을 중시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민족 정체성이다. 만일 팔레스티나에 있는 유대인이 전쟁으로 고향 가운데 있다고 가정하자. 현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이 동시적으로 고통을 느낀다면 그들은 유대인이다. 그러나 아무리 혈통이 같다 할지라도 본토의 유대인과 동고동락하지 아니할 때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일리가 있다.

민족 정체성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한다. 한민족이란 어떤

더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안창호, 이상재, 이승훈, 조만식 선생 등 신앙적인 지도자들도 하나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워 민족애를 가진 분들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선교사는 섬기는 현지가 못지않게 조국을 사랑하는 자이다.

진 그리고 집권여당은 무엇을 했나? 심심찮게 국가VIP를 모시고 조찬기도회를 한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나? 자고로 고금을 막론하고 절대권력 앞에는 사람들이 긴다. 고양이 앞에 쥐처럼 조용해 눈치 보며 자기 뱃속만 채우기 쉽다. 그래서 충신을 찾기 어렵고 간신들이 득실거린다.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이들 중 개신교인만 25%인 75명이다. 가톨릭까지 합산하면 100명이 넘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1/3이상이다. 현재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 그리고 총리도 크리스천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집권 여당과 정부 각료 그리고 청와대 일꾼 가운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포진해있다는 말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최순실의 실태를 알고 있었다. 한데 그 누구도 의로운 양심과 신앙으로 직언하지 않았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오호통제라.

맺음 말

일반적으로 선교사는 예수 이름으로 타 민족을 섬기는 자이다. 그중 어떤 이는 현지 나라 국적을 취득한 자도 있다. 그렇다할지라도 선교사는 그 나라 국민이 될 정 현지나라 사람은 아니다. 표범이 양털에 있는 반짐을 바꿀 수 없듯이 태생적 민족은 바꿀 수 없다. 문제는 정체성이다. 선교사는 동족과 함께 오늘의 자기가 있기까지 요람이 되어준 조국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바울과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했다.

선교사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지 않았다. 조국의 터전에서 태어나고 국가의 보호 속에 자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조국에 빛진 자이다. 따라서 선교사는 현지의 사역 못지않게 조국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렵다. 평시도 그렇거니와 위기 때에는 더욱더 기도로 나라사랑 민족 사랑을 표출해야 한다. 자기 자신은 물론 현지인에게도 우리민족과 열방을 향해 중보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비단 눈앞의 문제뿐만 아니라 멀리 통일한국이 이루어져 선교한국으로 들림 받도록!

jsong007@hanmail.net

나라사랑 민족사랑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세계 4대 열강이 포위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잠리 헬륨이 큰 중국,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미국,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무시할 수 없는 일본이 있다. 인구로 치면 20억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셈이다. 이 열강들은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

선교 펴기

스페인

다시 복음이 들려질 기다리는 유럽의 끝에서 Alaba a Jehov a!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의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요16:20).
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식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고,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 진리를 알 수 있는 눈이 가리워져 있는 자들은 잠시 기뻐하지만 결국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제자들은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북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로부터 너무나도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개신교 부흥이 한 번도 없었던 곳입니다. 또한 무슬림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뿌에르따(La Puerta)교회의 세례식
지난주일 저희가 섬기는 라뿌에르따교회에서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7명이 성삼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성실하게 예배에 출석하였고, 주중에 성경공부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아침부터 수조에



물을 받아 예배가 끝나갈 무렵 온 성도들이 함께 한 가운데 한사람씩 도전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여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벽녘에 입항하는 Ferry를 기다리며
일상 속에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6시에 말라가 항구를 향해 출발합니다. 아침 미명이 찾아오지 무렵 택시들이 모여들어 아프리카의 스페인령 Melilla(멜리야)에서 출발한 여객선을 타고 무슬림들이 도착합니다. 출입구 자동문이 열리면 그들에게 성경 펴기나 예수영화 CD를 건넵니다. 유럽에 첫 발을 딛는 이들에게 복음이 담긴 것을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그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한사람 한사람 이것을 받아갈 때 감사와 감격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말라가 서남쪽에 위치한 Frengirola(프렝히롤라)에 갑니다. 이곳에는 아주 큰 중고품시장이 있습니다. 근교에 사는 많은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것을 팔고 사려고 방문합니다. 지난주에는 케빈이와 이안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많이 신기해했고 무슬림 여성분들이 다가오면 큰일이라도 하듯 저에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앞으로 두 아이가 선교지에서 주님의 일로 즐거워하며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Centro Cultula(문화사역)에서 섬기며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문화사역 교실이 열립니다. 이 수업은 스페인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북아프리카에서 온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시리아에서 탈출하여 온 이들도 있습니다. 스페인어, 영어, 아랍어 그리고 컴퓨터 교실을 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교회개척을 위해 방문하고 있는 Benagalbon(베나갈본)에서 문화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개척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함께 할 기도제목
1. 유럽과 북아프리카가 만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2.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만나는 낯선 이들에게 성경 펴기지를 전달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소서.
 3. 매일 새벽 항구로 들어오는 북아프리카 발여객선의 무슬림들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소서.
 4. 계속해서 언어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2016년 10월 25일
남사현, 이현진(예향, 이안, 케빈) 선교사 드림
malagamission@gmail.com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그리고 약 14시간 동안 공중을 날아 돌아오는 동안 지난 64년 생애와 36년 결혼생활과 현재 섬기는 교회에서의 27년 사역을 돌아보며 교마다 일마다 힘을 때면 때면 인도 해주셨던 소망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내와 함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힘들 때 함께 불렀던 찬송을 조용히 읊조리며 기도할 때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니 내길 예비하시니 내 하루 하루를

기도하며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앞으로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늘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맙시다.

넷째는 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eternity).

우리 성도들은 뒤도 옆도 앞도 보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라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늘나라에 올라 보낼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쓰지 않은 것은 모두 그 나라에서는 헛된 것지만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고 수고한 것만 헛되지 않을 것을 알게 합니다. 선교사대회 숙소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아침식사를 한 후엔 ECC(Evangelical Christian Church)라는 건물로 옮겨가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선교사님 중 한분에게 ECC에 대하여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국가에서 평생 의료선교한 여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나라 왕실에서 태어난 모든 왕손들을 받아 기른 분이었습니다. 노후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왕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어서 바라

는 것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부탁한 것은 외국에서 온 크리스천들이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땅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땅을 주었고 그 땅에 커다란 건물을 짓도록 도와주므로 그 후로 그 나라에 와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심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각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53개 교회를 이루어 시간을 나누어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그 건물 앞에 서니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큰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가족도 없이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모두 장차 가야할 저 높은 곳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충성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뉘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thankful). 앞을 보며 조심합니다(careful). 앞을 보며 소망을 갖습니다(hopeful).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를 보며 이 땅에 머물 동안 충성합니다(faithful).
우리 모두 이 성도가 가져야 할 시선을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pwkim529@gmail.com

제2회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 (하)

(2016년 9월 27-30일 제주도에서)

노봉린 박사
AGST-Pacific 신학대학원 원장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2. 중국교회는 선교를 통하여 교회 연합운동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중국교회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로 나누어져 있고 가정교회도 농촌교회, 지방교회, 도시교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연합운동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정부의 종교법에 의해 개신교 교단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타국의 많은 교단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교단을 비공식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는 이렇게 분열된 기독교인을 하나로 묶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교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북미의 한인교회도 KWMC 같은 연합선교대회를 통하여 교회들의 연합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교리와 정치적으로는 교회들이 갈라지지만 선교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3.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는 현대 세계 선교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19-20세기에 일어났던 서양교회의 세계 선교운동은 오늘에 와서 쇠약해졌으며 에큐메니칼 선교운동은 거의 자리를 감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세계 선교운동은 제3세계 교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선교사의 60% 이상이 제3세계 선교사라는 실정에서 중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렬한 선교운동은 전 세계 선교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5월에 홍콩에서 모였던 제1회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에서 서울 온누리교회 담임목사인 이재훈 목사는 그의 강연에서 "이번에 이 선교대회에 와서 느낀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중국교회로부터 선교의 열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선교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1910 에딘버그 국제선교대회"와 "로잔선교대회"(1974, 1989, 2010)와 "세계선교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을 통하여 세계 선교운동을 일으켜 왔다. 하나님은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운동을 통해 새로운 세계복음화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세계복음화는 중국교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교회 선교운동이 배워야 할 요소

중국교회의 선교운동은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타국의 선교단체들의 장단점을 잘 연구하여 서양선교사들과 한국선교사들의 과오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1. 전세계 기독교와 디아스포라 중국교회와 동반자 관계 유지해야 한다.

과거의 서양선교사들이 자국의 정치적 식민정책과 경제적, 교육적 세력을 의지하여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중국선교도 중국의 막대한 인구나 경제세력과 민족 자존심을 갖고 선교할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 21세기 선교는 중국교회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교회가 연합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겸손한 태도를 갖고 서양교회와 한국교회는 물론 아시아의 많은 나라의 기독교와 손을 잡고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선교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전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디아스포라 중국교회와도 긴밀한 연결성을 갖고 선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선교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많은 선교사 헌신자를 선교지에 파송할 가능성이 있다.

선교사 후보생은 선교지에 가기 전에 충분한 선교훈련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교회는 중국정부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중국내에서 선교훈련을 마련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다.

한국교회의 예를 보면 많은 한국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기 전에 신학교와 선교단체와 지역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다. 필자는 OMF 선교사에서 30년간 (1970-2000) 아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선교훈련을 받고 나온 선교사와 받지 않고 나온 선교사의 차이점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었다. 선교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나온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많은 과오를 저지르게 되며 선교지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었다.

중국에는 21개 삼자교회 신학교를 포함하여 700개 신학교가 있다고 홍콩성경신학교 학장인 이도마 박사는 말하였다. 중국교회의 급선

무는 중국의 수많은 가정교회 신학교에 선교학을 설치하여 중국목회자와 선교사 후보생에게 선교비전과 선교훈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는 속히 중국신학교 선교학 교수와 선교단체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국교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교회의 1990년까지의 선교정책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과오를 범했다. 한국교회도 많은 신학교의 선교강의와 30년의 선교경험을 통하여 선교에 관한 것을 배웠고 올바른 선교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것이 중국교회 선교가 필요한 요소이다.

3. 중국교회 선교운동은 바로 옆집인 한국교회선교운동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한국교회 선교의 장단점을 배워야 한다.

한국교회는 중국교회로부터 오늘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영성과 선교의 비전을 배워야 한다. 한국교회도 한때 열렬히 소유했던 신앙갱신운동이 서서히 살아져 버리는 이때, 중국교회와 친밀히 교제하며 특별히 한국교회 청년들이 중국기독교청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선교의 비전을 확산해야 한다.

반면에 선교중국 2030 선교운동이 한국교회가 198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선교운동의 경로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연결하여 한국교회로부터 배울 것은 겸손히 배워

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는 선교적 차원에서 서로 필요하다.

결론

1807년 Robert Morrison의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이후 중국교회의 최대의 성장시대가 오늘날 것을 중국교회는 보여주고 있다. 중국교회는 정부의 압박 속에서도 생생히 살아있다. 선교중국 2030 선교운동도 살아 있는 중국교회의 표현의 일부이다.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의 목적은 2030년까지 20,000명의 중국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교회 선교운동은 급속도의 교회성장과 경제부흥을 통하여 중국의 가정교회 중심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현재 도시의 가정교회 중심으로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선교운동이 농촌교회와 전통적인 삼자교회에도 확산될 것이며 각 지역교회 중심으로 선교운동이 전개될 것이다.

선교중국 2030 운동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중국의 가정교회가 중국내에 얼마나 선교사 훈련과정을 마련할 수 있으며 특별히 가정교회 신학교가 중국정부 규제 하에서 어떤 속도로 신학교를 마련하며, 필요한 선교학 교수를 배출하며, 선교재료를 중국어로 마련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선교중국 2030 선교운동에 계속 임하기를 기원한다.

rohonolulu@gmail.com

투고 / 미얀마 선교를 다녀와서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교회)

미얀마는 작년 10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선거 이후 민주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지만 아직도 외국인이 출입을 하기에는 아직도 제약이 많은 곳이다. 이번에는 10월 첫 주부터 3주간에 걸쳐 세 곳의 신학교에서 인텐시브 클래스(Intensive Class)를 강의하는 강행군을 하게 되었는데 Shan주의 Tachileik에 위치한 Mission for Christ Seminary와 Sagaing의 Tahan 지역에 위치한 Bethel Theological Seminary 그리고 Tahan Theological Seminary이다.

바깥기온이 섭씨 45도를 오르내리는 데다 습도까지 엄청나게 높았

던 관계로 이를 극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력이 모자란 관계로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어떤 곳은 선풍기조차도 가동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내 자신 힘과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미얀마신학교육의 역사를 조명해보면 크게 두 줄기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이 나라 선교의 대부 격인 아노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50여 년 전 수도인 양곤(Yangon)을 중심으로 시작된 학교로서 대표적으로 Myanmar Institute of

Theology(MIT)를 들 수 있다.

다른 한 줄기는 인도에서 활동하던 침례교단과 장로교단 선교사들이 미얀마의 서북쪽 국경지역에 위치한 Chin족이나 Kachin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워진 학교들이다. 그 중에는 필자가 3년 전부터 매년 한 두 차례 강의를 하고 있는 40년 가까운 연륜을 가진 타한신학교가 대표적인 학교이다.

특별히 Chin족은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했을 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족이라 할 수 있다. 전체인구가 160만 명에 이르고 있는 소수 민족이지만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양곤을 중심으로 불교 기독교 세력들로부터 적지 않은 박해와 차별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유럽, 호주 등지로 떠나 살고 있으며 미국에도 인디애나 주의 인디아나폴리스 등지에 3만 여명의 Chin족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를 가리켜 Chin 디아스포라(Diaspora)로 부르곤 한다.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단면을 상당히 체험할 수 있었는데 주일 하루 Tahan 시가지를 둘러본 결과 불교신도들이 운영하는 가게들 외에는 대수주의 상점들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얀마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 속해있는 소수민족의 하나인 Chin족 중에 95% 이상이 기독교인이라 하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데이비드라는 형제를 만나서 영적인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의 어린 시절 가난하고 힘든 삶에도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밤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숙연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영어로 교육을 받으면서 학업 성취 능력도 대단한 반면에 M.Div. 과정을 졸업하고 나면 교회나 병원, 어린이학교, 기타 기독교 관계기관에 진출하는 것이 전부가 해를 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직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하고 있는 미얀마의 여타 소수민족을 포함한 95% 이상의 전도대상자들에

게 복음을 전해야 할 시점이다.

미얀마에는 수많은 소수민족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 종족들이 사용하는 토속어(dialect)만 해도 때로는 수십 개에 이르는 관계로 외국사람들이 현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얀마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국가의 공용어인 Burmese를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미얀마 내지선교(inland mission)에 뜻을 품은 현지의 선교 사명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사역의 일환으로 작년에 필자가 섬기는 나성세계교회에서 타한신학교 도서관에 선교에 관계된 서적을 200부 가까이 기부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린다. 더 나아가 이번 선교여행 기간에 주님이 특별한 일을 이루어주셨는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기도도 준비해 왔던 일로서 타한 신학교 안에 선교장학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신학교 학장을 포함해서 여섯 명의 교수진으로 실무를 담당할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Tahan Mission Scholarship Foundation이라는 이름으로 그 첫발을 떼게 되었다.

우선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앞으로 3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지의 물가가 많이 저렴한 관계로 학비, 기숙사비, 교재비, 개인 용돈에 이르기까지 수혜자 한명 당 1년에 출납액 500달러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선교지에 예배당을 지어주거나 선교사에게 물질로 도움을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복음전파를 위해서 현지의 가운데 사명자를 키워내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의미 있는 선교활동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주변에 이와 같은 사역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06)579-7576, Fax: (206)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넬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수 오 예 배: 오후 8:00 중고등학생: 오전 10:11(한), 오전 11:11(영) 유치, 유년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오 예 배: 오후 8:00 중, 고등학생: 오전 10:45 주일부흥예배: 오후 10:45 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부흥예배: 오후 8: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psattle.org	안다루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8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jehs.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org	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해: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422-0288, Fax: (215)42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부흥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aleti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21)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5)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이대학교신학대학원 교수)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한인교회의 기독교 교육에서 많이 신경 써서 논의해오지 못했던, 한인기독교교육을 위해서 한인기독교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특히 비평적 사회학적 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지난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 중 먼저 "물질 만능주의(Mammonism)"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현재 한인기독교교육 안에 있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 어떻게 비평적으로 관여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물질만능주의라는 사회적 이슈를 향한 한인기독교교육에 의한 비평적 사회학적 해석을 통한 관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교육이 발달 살아가는 이 사회를 향해 무엇인가 비평적인 관여를 한

사실 역설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사회를 향한 비판적 관여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적 교육 실천들에서 팽배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은 결국 이 사회의 문제들이며, 우리의 다양한 기독교 교육기관들이 이 사회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독교교육의 실천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회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병은 곧 기독교교육 실천의 병이기도 하며, 이에 사회의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교육 실천의 병도 치유되지 않는, 양자 는 유기체적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하니까 사회에 대해 비평적 관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해지기 위해서 그리 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그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기체적 인식이 우

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사회가 건전하게 진행되고 발전되어 인간 가치를 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보다 덜 심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자본주의가 인간의 이기주의와 맞물리면서 돈을 최상의 가치에 두는 쪽으로, 그리고 타인의 삶과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나"만 "돈"이 많은 행보하다는 쪽으로 진행, 발전되어가면서, 이 사회는 모든 삶과 인간관계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돈에만 최상의 가치를 두는 물질 만능주의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는 물질 만능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배금주의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을 신격화하고 돈을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마련된 장치들은 이제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종국에는 인간관계와 인간성과 그들의 터전

물질만능주의는 "왜곡된 자본주의의 행사"

삶과 인간관계, 자연 관계서 돈만이 최상의 가치로 생각

다는 것은 기독교교육이 사회를 향해 선지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독교교육이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도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의 한인기독교교육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독교교육의 자질이 완벽히 이루어졌고 이를 본보기로 내세우면서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관여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강력한 영향력이 있을 것일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비판적 관여가 가능할 것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 기독교교육의 모습이 완전한 것이 아니며 모범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도 잘 못하면서 사회를 향한 비판적 관여를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는 오늘 논의하려는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이슈들에 관해서 기독교교육이 사회를 향한 비판적 관여를 하고자 할 때 늘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너나 잘해"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은 것이 사실 현재 우리 기독교교육의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를 향한 선지자적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기독교교육의 사회 교육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리 기독교교육이 가져야 하는 선지자적 사명감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며 더욱 굳건한 강화체제가 되어줄 것입니다(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한인기독교교육에 의한 비평적 사회학적 해석을 통한 관여에 대해 다룰 것이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바쁘게 씁니다).

사회 교육적 사명감과 유기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기독교교육의 사회 비평적 관여는 "물질 만능주의(Mammonism)에 대한 한인기독교교육에 의한 비평적 사회학적 해석을 통한 관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및 한인 사회의 물질만능주의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영향들은 무엇이며, 한인 기독교 교육은 이를 향해 어떠한 교육내용을 가질 수 있는지, 즉 한인기독교교육의 답안이 물질만능주의로 가득찬 이 사회를 향해 대안적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미국 사회와 한인 사회에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Mammonism)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왜곡된 자본주의의 행사(Twisted Exercise of Capitalism)"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본 및 자본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게 됩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산업화 양상은 자본재와 및 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에 최대 가치를 부여하

이 자연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사실 미국 사회는 자본주의의 메카이며 세계의 자본주의의 이끄는 사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밭 밭 살고 사는 미국 사회에 물질 만능주의가 자본주의의 왜곡된 행사와 함께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미국사회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한인 사회에, 게다가 주로 개인적인 물질적 번영과 자녀들의 보다 나은 교육기회(자본)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는 기제를 위해 이민을 단행한 이민자들의 모임인 한인사회에,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것 역시 그리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곡된 자본주의로 인해 야기된 물질만능주의가 가져온 미국과 한인사회의 문제점들-대부분 사회를 향한 영향력-은 무엇이며 기독교교육은 어떻게 이에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면관계상 이 사회에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의 영향들(문제점들)인 이기주의, 극단적 계급화 및 빈부격차, 부정부패, 인간성 상실, 및 도덕성 윤리성 파괴 등에 대한 것, 이들에 대해 기독교 교육이 펼칠 수 있는 대안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음이야기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유월절의 완성, 그리스도(마26:1-5)찬178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성취를 선포하십니다. 어떤 점이 그러합니까? 첫째, 그리스도 자신이 유월절 성취자이심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2). 자신이 유월절의 성취자로서 자기 백성을 죽음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심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양의 죽임처럼 자신의 죽음이 그것을 대속하셨을

을 선포하십니다.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족들을 대신한 것처럼 인자의 죽음이 자기 백성의 모든 저주를 대신하심 곧 대속물이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맹수 같은 당대 종교자들의 온갖 꾀계를 이용하심으로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까(3-5).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화 한 여인의 헌신(마26:6-10)찬469

아무나 무엇을 헌신한다 하여 모두 열납되지 못합니다. 오직 바른 헌신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본문의 한 여인의 헌신은 왜 그렇게 귀합니까? 첫째, 최고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7).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은 가격보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수많은 귀한 제물을 친히 숨겨두셨다가 때가 될 때 사용하십니다. 그 여인의 옥합 같

은 마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둘째, 자원의 마음으로 주님에게만 드렸기 때문입니다(7-8). 주님 살아생전 그의 죽음을 정식으로 기념한 이는 이 여인뿐입니다. 셋째, 가난한 자의 구제보다 주님에게 드리는 것이 앞서야 합니다(10). 주님에게 헌신한 자만이 가난한 자를 바로 설칠 수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체에서 이런 헌신을 구합니다.

수 유다의 배반요인(마26:14-16)찬190

유다를 그리스도 구속의 협력자라고 주장하는 그릇된 가르침은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 해결됩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째, 의식 때문입니다(14). 사도들에 포함됐어도 그는 진심된 섬김을 상실하고 눈가림만 하는 일에 속달된 사람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외식주의자가 돼버립니다. 둘째, 탐욕 때문입니다(15). 그런 외식은 돈에 대한 탐욕에서 나왔습니다. 탐욕

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셋째, 재주 때문입니다(16). 첫 단추를 잘못되면 모두 비틀어 지듯이 그 중은 재주는 마귀의 손아래 움직였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교훈을 저버리고 자기 육적 목적을 성취하려고 에덴동산의 마귀처럼 교묘하게 움직이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위험을 이깁시다.

목 마지막 유월절 만찬(마26:17-20)찬188

새 언약이 제정되는 사건이 유월절 만찬에 된 것은 계획된 것임을 본문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유월절에 잡수시기 원하신 주님은 유월절의 성취를 안중에도 두신 것입니다(17-18). 이것은 구약의 반복된 구원의 여러 상징들이 그 모두 성취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조출한 자리였으나 구약의 예언을 자신의 죽으심으로 성취됨을 실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유월절 양도 되시고 무교절의 무

교병도 되십니다. 둘째, 주님 구속을 성취하실 시간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18). 그렇게 "내 때"를 가리키신 것이 바로 이 때였습니다. 셋째, 그는 유월절 성취의 장소를 아셨습니다(18). "내 집"으로 표현된 마귀의 다락방은 새 언약을 세우기로 작정된 곳입니다. 유월절의 실재이신 그리스도안에 거해 그 풍성한 구원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금 근심이 없는 유다(마26:21-26)찬484

마태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가룟유다의 악행은 그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첫째, 생명을 이르는 근심을 할 줄 몰랐습니다(25). 마귀가 지배하는 그의 마음은 참된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내이이까?"(22)라는 질문으로 근심한 것에 반해 그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둘째, 절멸과 같은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25). 주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했음에

도 불구하고 회개보다 순간을 모면하는 것으로 지나갔습니다. 셋째, 회개의 기회를 무시했습니다(23). "같은 그릇에 함께 손 넣은 자가 판다"는 개별적인 지적을 받았음에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임기응변으로 지나쳐 회개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재빨리 생명을 이르는 회개에 힘씁시다.

토 최초의 완성된 무교절(마26:26-29)찬82

유월절의 성취는 무교절의 성취입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참 무교절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잔치입니다(26). 오병이여로 풍족히 채우신 것처럼 그의 죽음이 주는 복은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신자는 이 복에 참여한 자입니다. 둘째,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잔치입니다(27-28). 무교병을 나누심처럼 주님의 삶, 곧 그의 죽음의 효능을 나누는 잔치입니다. 죄사함의 은

혜는 오직 그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죄없다 함을 받은 우리는 최대의 복을 받았습다. 셋째, 하나님나라의 영원한 잔치를 소망하는 잔치입니다(29). 과거가 정리되고 현재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영원한 잔치의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원한 연회가 기다립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l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8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철야인양을 위한 헌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2동 520 (148-3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명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1(131-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왕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172 291(잠실동)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7:00 Tel. (82)2-786-6579, 사택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제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금요일예배: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웅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새벽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성경공부 참여자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라!

한인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공부 준비 지침 마련

목사는 교인들을 조급하게 제자, 지도자, 교회 일꾼으로 만들려는 조교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철하게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한다. 겸손히 교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목사를 통해 성경공부의 활성화는 이뤄질 것이다.

성경공부는 교회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요소이다. 특히 한국교회에서의 그 역할은 절대적이다. 교회 크기와 관계없이 성경공부는 필수적이다. 그러다 보니 목사는 성경공부를 계획하고 인도하는데 열심을 다한다. 하지만 목사나 교인이나 기대한 만큼의 결실을 보지 못해 안타까운 현실이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인도자의 태도, 즉 어떻게 성경공부를 준비하고 인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보려고 한다.

1. 목사는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왜 성경공부를 해야 하나?”라는 설문을 교인들(올리비아 UMC)에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이랬다.

(1)성경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2)전도할 때 복음을 제대로 말해주고 싶어서 (3)기독교 신앙에 대해 바로 알고 싶어서 (4)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되게 살고 싶어서 (5)집사 권사 장로의 영적 체면을 살리고 싶어서.

또한, 언젠가 목회자수련회 때 왜 성경공부를 교인들에게 시키고 싶느냐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1)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려고 (2)교회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임원, 속장)로 훈련하기 위해서 (3)복음전파 사역(전도 또는 선교)에 헌신시키려고 (4)교회 생활을 진실되게 하게 하려고 (5)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려고.

이 결과들을 보며 무엇을 느끼는가? 성경공부에 대한 교육자(목사)와 피교육자(교인)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교인은 성경을 배우고 싶고, 목사는 지도자 훈련을 시키고 싶다. 그러다 보니 목사는 “성경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열매가 없다”고 탄탄하고, 교인은 “성경공부에 열심히 참석해보지만 별 의미가 없다”고 실망한다. 이렇게 성경공부를 두고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다.

2. 교육자인 목사가 피교육자인 교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교육자인 목사가 피교육자인 교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성경 자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교인들의 순수한 갈망을 이해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

그들은 외롭고 힘든 이민사회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기에 성경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싶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을 뿐이다. 그러니 목사는 교인들을 조급하게 제자, 지도자, 교회 일꾼으로 만들려는 조교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철하게 나누려고 애를 써야 한다. 목사는 선생님이나 “영원한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주는 “잘 반장”일 뿐이다. 그렇다. 겸손히 교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목사를 통해 성경공부의 활성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평신도들은 서로를 존경하며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려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성경공

부할 것인지 평신도의 형편을 고려하라. △특히 성경공부 장소의 다양화를 시도하라(토요일 오전 커피점에서 중년 남성들을 위한 성경공부, 화요일 점심 할머니와 할아버지 성경공부).

△성경공부 프로그램 또는 성경교재를 선택할 때 결코 자신의 영적 체험이나 목회 경력이나 신학적 역량을 의존하지 마라.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들을 이용하라. △Cokesbury, The Upper Room Ministries, Discipleship Ministries, NavPress, Life way 등을 통해 성경공부에 대한 정보를 얻어라.



교육자 목사가 피교육자 교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적절한 자료 찾아 효과적 계획 세우고 실천사항 제시 성도의 삶으로 나타내는 성경공부의 궁극적 관심 갖도록

부 시간에 있어지길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3. 적절한 성경공부 자료를 찾아 효과적인 성경공부를 계획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공부 교재나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나면, 반드시 실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급하게 결정하므로 목사로써의 신뢰감을 잃거나 목회에 타격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왜 성경공부를 해야 하나 기도하면서 타당한 이유를 찾아내고 그에 맞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라(사역자 훈련, 지도력 훈련, 영성 훈련, 새 가족 훈련).

△교인들의 영적 상태(신앙 연령, 교회 생활)와 인적 사항(남녀, 결혼, 직업)을 분석하여 성경공부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두라(여자 싱글 성경공부, 부부 성경공부).

주제별 성경공부, 인물별 성경공부, 책별 성경공부, 시리즈 성경공부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개 교회의 성경공부 목적과 목사의 목회 방향과 교인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또한, △동료 목사들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확정되었으면 △그 내용을 자세히 그리고 충분히 홍보하여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라. 홍보는 성경공부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4. 효과적인 성경공부 인도를 위해 실천 사항을 세워야 한다.

어떻게 성경공부를 인도해야 할까?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절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민목회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터득한 실천 사항들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목사는 성경공부의 교과서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타성에 젖지 말고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연구해야 한다.

▲성경 말씀이 교인들의 실제적 삶에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교인들에게 질문할 시간과 자기 생각을 나눌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말고 겸손하고 진철하게 교인들을 대해야 한다.

▲성경 지도, 성화, 파워포인트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성경공부 주제에 맞추어 간증 자를 초대하거나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도 좋다.

▲복습보다는 예습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기도로 성경공부를 시작하고 가능하면 합심 기도로 마치는 것이 좋다.

5. 성경공부에 대한 궁극적 관심에 눈을 돌려야 한다.

지금 우리는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영적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게 해야 한다. 세상을 향해 교인들이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을 세상에 외치는 그 날을 기대하며 목사는 성경공부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존 웨슬리의 고백을 시금적으로 삼자.

“여기에 매일 매일의 바쁜 삶 가운데서 벗어나 나 혼자 앉아 있다. 오직 하나님만 여기 계신다. 그 앞에서 그분의 책을 열어 놓는다. 하늘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나는 이 책을 공부한다.”

인/터/뷰

2017 YWAM 시니어 미니 DTS 준비하는 공혁, 조은주 선교사

2017 YWAM 시니어 미니 DTS가 실시된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YWAM 시니어 미니 DTS는 100세 시대를 맞아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 크리스천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17 YWAM 시니어 미니 DTS는 오는 2017년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도미니카공화국 산타도밍고에 위치한 YWAM 베이스에서 실시된다. 알래스카, 시애틀, LA 등 서부지역을 순회하며 이번 DTS를 홍보하고 있는 공혁 선교사(코나열방대회 대외협력팀 한국전담)는 DTS 개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65세 정도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은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이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인데도 말이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기도와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왔습니다.”

공혁 선교사는 또한 한국의 교회출석률의 저하현상을 예로 들면서 시니어들의 활동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교회에 출석하는 대학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반응이 있다는 것은 본인들의 사역이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자신들과 비슷한 또래들에게 적용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선교가 이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이번에 열리게 되는 DTS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DTS는 김현철 이은혜 선교사가 주도하게 된다.

공혁 선교사는 “시니어들은 인생의 후반전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김현철 선교사 부부의 사역에 부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을 위해 제자훈련을 통해 복음전도자로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100세 시대... 인생의 후반전 선교로 마무리하자” 2017년 1월9일-2월3일 도미니카 산타도밍고에서 훈련

생이 5% 미만이고 고등학생의 경우 3% 정도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헌신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는 셈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과연 10-30대들만이 젊은이들일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은 활동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 자들이니까요.”

이번에 실시되는 DTS는 현재 도미니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현철 선교사가 고안해낸 것이다. 삼미그룹을 경영하던 기업가 출신으로 55세에 사역을 시작하고 지난 2003년 도미니카에 세계은혜선교회를 설립하고 중남미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에 헌신한 김현철 선교사가 도미니카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많은 분들에게 그의 선교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부러워하고 칭찬하게 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김 선교사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이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반응을 보면서 이래도 되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

그들의 인생후반기는 매우 보람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보통 DTS는 3개월간 강의, 그리고 2-3개월간 선교여행을 통한 실습과정을 갖게 된다. 하지만 시니어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체력적으로 부담으로 다가간다. 따라서 4주간 심도 있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DTS 과정을 갖게 된다.

또한 DTS가 열리는 1월은 도미니카의 날씨가 매우 좋다. 강의주제는 △하나님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성경) △십자가와 제자도 △영적전쟁 △내적치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성경적 세계관 △예배와 묵상 △선교와 선교사다.

4주간 일정이지만 수업은 하루 4시간이며, 그 외에는 참가자들과 대화, 봉사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비용은 1인당 900달러(항공료 본인부담) 부부신청 시 10% 할인, 12월 15일 이전 등록은 5% 추가 할인된다.

참가신청은 이메일(seniordtsdr@gmail.com)으로 하면 된다.

▲문의: (808)345-0807 (박준호 기자)



GMU추수감사 초청의 밤 (Open House)



ABHE 정회원



TRACS 정회원



ATS 정회원

초청의 밤 (Open House)

날자: 11월 22일(화) 7:00pm

장소: GMU 예배실 (은혜한인교회 Miracle center)

행사내용: - 학교탐방 (Camus tour) - 학위인가 및 과정 소개
- 정부학자금 보조 소개 - 학생 비자 소개
-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 소개 - 입학관련 질문과 답변

* 특별상품추첨
*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입학금면제
*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

선교학박사과정 (DMiss, 유학생 I-20 발급)

2016 하반기-2017상반기 집중강의

-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상황화 연구 (12/5-1/3, 매주월요일 5주)
- 다문화영성 (2017년 1/9-13, 월-금)
- 가정은 선교지 (2017년 1/16-20, 월-금)

2017년도 봄학기 신입생 접수
2017봄 학기 수업시작: 2017년 1월 30일

학위과정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신학사 (BA)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English Track, LA 연장클래스에서 수업가능 I-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HD 시스템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Live" 강의
LA 연장클래스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Come Mission 국제본부 1층 강의실)



그리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세계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학교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Email: admissions@gm.edu, www.gm.edu